



정답과 해설



본책 02

시험 대비 문제집 34

1 나의 즐거운 국어생활



똑똑하게 글 읽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독서 상황, 수준 02 (1) ○ (2) × (3) ○ 03 ②

- 01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독서 목적, 시기, 시간, 방식 등의 독서 상황과 글 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의 정도, 배경지식의 정도를 고려하고, 글에 쓰인 단어와 문장의 수준 등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고려해야 한다.
- 02 (1) 글을 읽기 전에 목적을 확인해야 독서 목적에 맞게 글을 읽을 수 있다.
(2)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읽기 전과 읽는 중 과정에서 모두 할 수 있다.
(3) 글을 다 읽은 후에는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이나 글의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 03 읽기 과정을 점점 조정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며 글을 꼼꼼하게 읽게 되므로 글을 더욱 빠르게 읽을 수 있다.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제재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학습목

009~019쪽

- 013쪽 처음 소주제: 월드컵
① 창설자
- 015쪽 가운데 1 소주제: 질 리메
① 월드컵
② 우루과이
- 018쪽 가운데 2 소주제: 한계
① 본선
② 대륙
③ 전쟁
끝 소주제: 국가
① 문단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09~019쪽

- 015쪽 (1) 유치하다 (2) 원정
018쪽 (1) 이목 (2) 선정하다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09~019쪽

- 009쪽 01 ③ 02 ②
010쪽 03 ② 04 ③
011쪽 05 ① 06 ④
012쪽 07 ⑤ 08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
013쪽 09 ⑤ 10 ⑤ 11 ⑤
014쪽 12 ③ 13 b, e, a, c, d
015쪽 14 당시, 적합했다 15 ④
016쪽 16 ② 17 ③ 18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 찾아보기
017쪽 19 ⑤ 20 비교 21 ⑤
018쪽 22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국가 간 화합과 이해를 높이는 것 23 ③
019쪽 24 ③
25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 및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

01 윤아는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을 한 권 골라 봐야겠다고 하였으므로, 여가 시간에 재미있게 읽기 위함이 독서 목적임을 알 수 있다.

02 윤아가 책 『봄·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추천을 고려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풀이** ① “전에 읽었던 『동백꽃』도 어렵지 않았으니 ~”에서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책이 약간 두껍지만, 여가 시간에 톡톡히 읽을 거라 시간은 충분해!”에서 읽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학년 때 『동백꽃』을 배우며 ‘김유정’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지.”에서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난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에서 글의 갈래(소설)에 대한 흥미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모듬원이 “우리 모두 축구에는 관심이 많은데, 월드컵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네.”라고 하였으므로, 준서네 모듬이 월드컵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04 준서네 모듬이 함께 읽을 책을 고르며 베스트셀러 여부를 논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오답풀이** ① “다음 주가 발표잖아. 이 책은 굉장히 두꺼워서 기한 내에 다 읽기는 힘들 것 같은데?”에서 해당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② “또 표지에 나온 단어부터 이해가 되질 않으니, 우리 수준에는 어려운 책인 것 같아.”에서 해당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④, ⑤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분야를 다루고 있거나,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이 더 좋지 않을까?”에서 해당 기준들을 고려하고 있다.

05 준서네 모듬은 책의 표지에 있는 제목과 문구를 살펴보고 있다.

06 책을 훑어본 결과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힐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에서는 모듬 구성원 모두의 독서 수준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준서는 글을 읽기 전에 책의 제목이나 차례 등을 살펴보았을 뿐, 글의 첫 부분을 읽고 글의 수준이 적절한지 파악하지는 않았다.
- 08 ㉠에서 준서는 읽기 목적을 떠올리며 자신이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글을 읽는'다고 하였다.
- 09 ㉠에서는 질문의 형식을 통해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10 ㉠에서 '월드컵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라고 하였으므로, 월드컵의 창설자, 창설 시기, 창설 과정이 이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11 이 글에서 쥘 리메는 11살 때 홀로 파리로 이주하여 갖은 노력 끝에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① 쥘 리메는 11살 때 홀로 파리로 이주하였다.
 ② 쥘 리메는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한 식료품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③ 쥘 리메는 상류층 출신이 아니라 식료품상의 아들 출신이다.
 ④ 쥘 리메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대부분 귀족이거나 상류층 출신이었던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 12 <보기>에서는 당시 축구가 프랑스 상류 사회와 중산층에서 환영받는 스포츠가 아니었던 이유와 같은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
- 13 쥘 리메는 스포츠 클럽인 '레드 스타'를 조직한 뒤(b) 국제 축구 연맹의 창설을 보고 스포츠 조직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고(e), 프랑스 최초의 축구 국가 리그를 창설하고 회장이 된다(a), 그 뒤 프랑스 축구 연맹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고(c), 국제 축구 연맹의 제3대 회장이 된 뒤 월드컵을 기획하기 시작한다(d).
- 14 우루과이는 1924년과 1928년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고, 1930년에는 세계 박람회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월드컵 개최에 적합했다고 하였다.
- 15 참가국이 13개국에 불과했고 이 중 유럽 국가는 4개국뿐이었다고 하였으므로, 국제 친선과 화합을 이루기에는 너무 적은 수의 국가가 참가했기 때문에 글쓴이는 ㉠과 같이 첫 번째 월드컵이 실패한 월드컵이라고 한 것이다.
- 16 1982년 이전의 월드컵에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대륙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 숫자가 매우 적어 이들 국가들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유럽과 남미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의 국가들은 월드컵에서 결다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의 월드컵을 전 지구적인 축구 대회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17 본문에는 '축구 전쟁'으로 유명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출전했다는 사실만 언급되었을 뿐, 두 국가가 화합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8 준서는 글을 읽으며 '축구 전쟁'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보려 하고 있다. 이는 점점·조정 방법 중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 찾아보기'에 해당한다.
- 19 주앙 아벨란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의 월드컵 출전권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로 1974년 국제 축구 연맹 회장에 당선되었고, 1982년 대회에서 실제로 이 지역들의 출전권을 늘렸다.
- 20 ㉠에서 준서는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해 1982년 월드컵도 진정한 월드컵으로 보기 어렵다는 글쓴이의 의견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은 것이다.
- 21 ㉠에서는 <보기>와 같이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표시하며 읽기'에 해당한다.
 ②, ③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 찾아보기'에 해당한다.
 ④ '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답 찾기'에 해당한다.
- 22 '끝'의 마지막 문장에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국가 간 화합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던 쥘 리메'라고 하였으므로, 쥘 리메가 월드컵을 통해 이루고자 한 두 가지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과 국가 간 화합과 이해를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23 '끝'에서 글쓴이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국가 간 화합과 이해를 높이고자 했던 쥘 리메를 떠올리며 월드컵을 즐기기를 제안하고 있다.
- 24 글의 제목을 보며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글을 읽은 후가 아니라 글을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점점 및 조정 방법이다.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과 글의 주제를 정리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거나 자신이 글을 읽은 과정을 점점 및 조정해 본다.
- 25 이 글은 쥘 리메의 월드컵 창설 과정과 첫 번째 월드컵의 개최를 통해 월드컵의 유래를 설명하고, 1982년 스페인 월드컵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중심으로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활동

020~024쪽

- 020쪽 1 관심
 2 배경지식, 예측, 주제
 021쪽 3 작가
 4 능동적
 024쪽 5 기억

학습목

020~024쪽

- 021쪽 ① 배경지식
 ② 제목, 문단, 목적
 ③ 재미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20~024쪽

021쪽 (1) 점검 (2) 조정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20~024쪽

020쪽 01 ③ 02 ④ 03 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답 찾기

021쪽 04 ㄱ: 읽기 전, ㄴ: 읽는 중, ㄷ: 읽은 후 05 ④

022쪽 06 ⑤ 07 ① 08 ③

023쪽 09 ② 10 ②

024쪽 11 ② 12 ⑤

- 01 글에 쓰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 ①, ②, ④, ⑤는 독서 상황에 맞는 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 02 ㄷ, ㅁ은 읽기 전 단계에서, ㄴ, ㄹ은 읽는 중 단계에서, ㄱ은 읽은 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검 및 조정 방법이다.
- 03 <보기>에서는 글 내용과 관련해 질문을 한 뒤 글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읽고 있다.
- 04 ㄱ은 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고, ㄴ은 글을 읽는 중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활동이며, ㄷ은 글을 다 읽은 후에 감상을 공유하는 활동이다.
- 05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읽으면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글쓴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6 <보기>는 인물을 표현한 그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얻고자 책을 읽으려는 것이므로, 관심 분야에 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독서 목적에 해당한다.
- 07 출판사의 위치가 가까운지는 독서 상황이나 수준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읽을 책을 선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 08 ㉠에서 학생은 선정한 책을 어떻게 읽을지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독서 감상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
- 09 문단의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읽는 중에 하는 점검 및 조정 활동이다.
- 10 <보기>에서는 글을 읽으며 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떠올린 뒤, 그 답을 인터넷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 11 글을 읽은 뒤에는 책의 주제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ㄱ), 글에서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ㄷ), 읽기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한다.
- 오답 풀이** ㄴ. 글을 읽는 행위가 읽기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글의 내용에 따라 읽기 목적을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읽기 목적과 상관없는 정보까지 모두 요약하면 읽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위주로 요약하는 것이 좋다.

- 12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게 되므로,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어려운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압축 파일

026쪽

- ① 차례 ② 답 ③ 주제 ④ 목적 ⑤ 본선 ⑥ 전문가
⑦ 글쓴이

발전 활동

027~030쪽

- 029쪽 2 많이
3 취사선택

학습곡

027~030쪽

- 030쪽 ① 해결
② 남독, 정독
③ 요점, 주제적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27~030쪽

- 027쪽 (1) ○ (2) ○
030쪽 (1) 몰입 (2) 문맥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27~030쪽

- 027쪽 01 ⑤ 02 ③
028쪽 03 ② 04 ① 05 ②
029쪽 06 ① 07 ④ 08 초서법
030쪽 09 ④ 10 ②

- 01 정약용의 독서 목적은 학문적 지식 습득이나 입신출세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문제와 역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
- 02 정약용이 권한 책은 자기 몸을 갖고 다듬는 데 필요한 책(ㄹ)과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역사책(ㄱ), 경제치용에 도움이 되는 책(ㄴ)이다.
- 오답 풀이** ㄷ. 정약용의 독서 목적은 입신출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출세하는 방법을 다룬 책은 권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03 정약용은 “훌륭한 독서를 위해서는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자기의 문제의식 또는 주관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04 정약용은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천백 편을 읽어도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 05 ‘초서법’은 책을 깊이 읽고 세밀하게 읽는 ‘정독’의 구체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최대한 많은 책을 읽으며 지식을 얻는 것은 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읽는 ‘정독’과는 거리가 멀다.
- 06 정약용은 독서 목적이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거나 입신출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07 ‘남독’은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 것’으로,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 내리기만 하는 것이다. 이는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과 관련이 없다.
- 08 정약용은 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읽는 ‘정독’을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정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초서법’을 제시하였다. 초서법은 큰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다.
- 09 책의 표지를 장식용으로 쓰는 것은 독서 방법과 관련이 없다.
- 10 휴식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한 독서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정신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31~033쪽

-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8강에 오른 국가들의 대륙별 분포가 고르기 때문이다. 06 ② 07 ③ 08 ④
09 ①

- 01 읽을 글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독서 목적, 분량, 수준, 관심 등이다. 다루는 내용이 이미 알려진 사실인지는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이 책은 굉장히 두꺼워서 기한 내에 다 읽기는 힘들 것 같은데?”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인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③ “정작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 말이야.”에서 독서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와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또 표지에 나온 단어부터 이해가 되질 않으니, 우리 수준에는 어려운 책인 것 같아.”에서 모두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인지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준서네 모듬은 다음 주 발표를 앞두고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를 다룬 책을 찾고 있다.

- 03 (나)에서 준서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읽을 글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글을 읽는 거였지.’에서 읽기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책의 제목이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이니까 ~’, ‘또 차례에 제시된 소제목을 보니 ~’에서 제목과 소제목을 보며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다는 것도 부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지.’에서 글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⑤ ‘차례를 살펴보니, 내가 찾고 있는 내용은 01, 02에 있는 것 같아.’에서 차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음을 알 수 있다.

- 04 월드컵이 만들어진 진정한 목적은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었음을 (나)의 끝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은 질 리메의 월드컵 창설 과정들과 관련한 내용이므로, ②는 ㉠을 읽으며 점검하고 조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글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글쓴이의 생각에 의문을 품으면서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관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05 **서술형**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글쓴이가 2002년 월드컵을 진정한 월드컵으로 평가한 이유는 1982년 월드컵과 달리 8강에 오른 국가들의 대륙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라)에서 제기한 대륙별 경기력 편차라는 한계를 극복한 대회였기 때문에 진정한 월드컵이라 한 것이다.

- 06 (다)에서 첫 번째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다고 하였다.

- 07 문맥으로 단어의 뜻을 유추하는 것은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만 도움이 될 뿐,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전 등을 활용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거나 표시하며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②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 찾아보기’ 방법에 해당한다.

④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으면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⑤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 방법에 해당한다.

- 08 정약용은 책을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 ‘남독’을 부정적으로 보고, 책을 깊이 세밀하게 읽는 ‘정독’을 택하였다.

- 09 ㉠에서 정약용은 책을 읽기 전에 자기의 문제의식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읽기 전에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다.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활동

034~044쪽

- 038쪽 2 독자
- 039쪽 4 신뢰도
- 041쪽 1 설명
- 044쪽 3 단일

학습곡

034~044쪽

- 035쪽 1 경험
- 2 매체
- 039쪽 1 복합, 글
- 2 관심
- 3 출처
- 041쪽 1 문제, 기대
- 2 논리, 근거, 깨달음
- 044쪽 1 이해, 정보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34~044쪽

- 035쪽 (1) × (2)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34~044쪽

- 034쪽 01 ④ 02 건의 내용, 해결 방안, 근거, 기대 효과
- 035쪽 03 화제 04 ④
- 036쪽 05 ④ 06 ②
- 037쪽 07 ④ 08 ㉠
- 038쪽 09 알고 있는 10 ⑤
- 039쪽 11 ⑤ 12 복합양식 13 ㄱ, ㄷ
- 040쪽 14 ⑤ 15 ①
- 041쪽 16 ① 17 정서를 표현하는 글 18 ⑤
- 042쪽 19 ④ 20 ② 21 ㉠: b, ㉡: a, ㉢: c
- 043쪽 22 ③ 23 채식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 잔반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채식으로 인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할 수 있다. 24 ①
- 044쪽 25 ③ 26 쓰기 윤리 27 ①

- 01 지유는 쓰기 계획을 세울 때 독자, 글의 목적, 글의 주제,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였으나, 글의 분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지유는 글을 읽을 독자를 영양 선생님이로 정했다.
- ② 지유는 채식 식단을 제공해 주기를 건의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 ③ 지유는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 제공의 요청을 주제로 정했다.

- ⑤ 지유는 글을 실을 매체는 인터넷 매체인 학교 누리집 게시판으로 정했다.

- 02 지유는 영양 선생님께서 의견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건의 내용과 해결 방안, 근거와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03 화제란 이야기할 만한 재료나 소재를 뜻하며, 우리 주변의 문제,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 소개하고 싶은 정보 등을 화제로 선정할 수 있다.

- 04 <보기>의 쓰기 계획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싹했다고 하며, 글을 실을 매체를 고려하고 있다.

- 05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지유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골라 글의 내용을 마련했다.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이다.

- 06 ㉠의 탄소의 순환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과 글은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 달라는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글을 쓸 때 활용하기 어렵다.

- 오답 풀이 ① 자료의 내용이 과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③ 「비비시 뉴스(BBC NEWS) 코리아」라는 출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 ④, ⑤ ㉠은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로, 사용된 어휘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07 ㉠은 채식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소개하고 채식 급식에 대한 학생과의 인터뷰를 담은 인터넷 뉴스 영상으로, 학생들의 우려가 아니라 채식 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 오답 풀이 ① ㉠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청소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이다. 이 기사는 국내 청소년 1인당 동물·식물 단백질 섭취량과 동물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은 동물 단백질의 높은 섭취는 과체중 및 비만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 ③ ㉠은 채식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 학생의 사례와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영상이다.

- ⑤ ㉠은 다양한 급식 메뉴 사진을 보여 주는 웹진으로, 채식 식단으로 맛있게 구성된 메뉴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 08 ㉠의 인터넷 기사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청소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유는 이를 활용하여 채식 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 09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먼저 주제에 대해 글로 쓸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더 찾아볼 내용으로 구분한 뒤, 더 찾아볼 내용으로 적은 자료를 수집한다.

- 10 <보기>는 여름철에 실내 온도를 높였을 때 절약되는 전력 소비량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따라서 온도 조절이 에너지 절감에 주는 효과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수집한 자료를 점검할 때는 자료가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료의 분량이 길다고 해서 전문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점검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 12 소리나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 여러 가지 기호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표현한 자료를 뜻하는 말은 복합양식 자료이다.
- 13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생성하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ㄱ),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ㄴ).
- 오답풀이** ㄴ.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만든 자료를 적절하게 끌어 쓰는 것이므로, 글쓴이의 개성적 문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4 건의문은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하는 글로, 자신의 감동이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독자를 설득하는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5 지유는 '가운데' 부분이 아닌 '처음' 부분에서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려 하고 있다.
- 16 글을 쓸 때는 글의 목적과 주제, 독자 등을 먼저 정하는 쓰기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게 글을 써나가야 한다. 글쓰기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기준으로 전 과정이 진행되므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7 글을 쓸 때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 체험한 내용과 그에 따른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도록 조직하는 것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내용 조직 방법에 해당한다.
- 18 건의문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처음-가운데-끝'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인사말과 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힌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한다. '끝' 부분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 19 이 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 제공'이라는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여러 해결 방안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 20 이 글에서는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단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하였다.
- 21 ㉠은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 주는 자료로, 육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식물성 음식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육류 위주 식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ㄴ) 데 적합하다. ㉡은 청소년 1인당 동물·식물 단백질 섭취량 변화를 나타낸 자료로 그래프에서는 해가 갈수록 식물 단백질 섭취량은 줄어드는 데 반해 동물 단백질 섭취량이 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동물 단백질 섭취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는(ㄴ) 데 적합하다. ㉢은 동물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나타낸 자료이다. 동물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동물 단백질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ㄴ) 데 적합하다.

- 22 지유는 육류 위주 식단의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영양 선생님께 한 달에 한 번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 23 지유는 채식 식단 제공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채식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 잔반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채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밝히고 있다.
- 24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ㄱ), 자료가 글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구성해야 한다(ㄴ).
- 오답풀이** ㄴ.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문단에 자료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것은 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ㄴ. 글쓴이의 의도에 맞게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면 원래의 자료가 전달하려는 사실이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5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할 때는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전달하려는 내용에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 26 쓰기 윤리는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도덕적·사회적 규범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27 복합양식 자료는 독자의 이해를 돕거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료를 활용한다고 해서 글을 더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압축파일

046쪽

- ① 기호 ② 신뢰 ③ 유형 ④ 원인 ⑤ 반론 ⑥ 수필
⑦ 수집 ⑧ 입체적

발전 활동

047~048쪽

- 047쪽 1 책
2 관심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47~048쪽

047쪽 (1) 처치 (2) 수척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47~048쪽

047쪽 01 ⑤ 02 ④

048쪽 03 ⑤ 04 ④

- 01 학생은 독서의 달 행사와 관련된 카드 뉴스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지역 도서관의 9월 독서 행사 소개'를 주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02 ㉠에서는 '벌 쏘임 예방 수칙'이라는 주제를 담고(d), '더위를 잊은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b).
- 오답 풀이** a. 활용할 매체 자료는 제목을 정한 뒤, 각 장의 내용과 자막을 구성할 때 고려한다.
c. 이미지를 제시할 순서는 카드별 내용이 정리된 후에 이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고려한다.
- 03 ㉠은 월별 발생 건수 그래프와 벌초하는 사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벌 쏘임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04 카드 뉴스는 독자를 고려하되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은 시각적 요소에 집중하게 하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된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49~050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④ 05 ③ 06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 01 지유는 육류 섭취가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제공해 달라고 건의하려는 것이지, 맛과 건강을 위한 급식 개선을 글의 주제로 삼은 것이 아니다.
- 02 [자료 2]의 탄소 순환 과정은 채식 식단 제공이라는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자료 1]에 제시된 그래프에는 육류가 식물성 식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육류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다.
③, ④ [자료 3]은 채식 급식을 시행한 학교의 학생 인터뷰이다. 이 자료로 학생들의 반응을 보여 주어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해결 방안(채식 급식 시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⑤ [자료 4]는 맛있게 차려진 채식 급식 식단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진반이 많이 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독자의 우려를 줄일 수 있다.

- 03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4 이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한계가 아니라,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인사말과 자기소개, 건의문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② (나)~(라)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밝히고 있다.

③ (마)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바)~(사)에서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전하고 있다.

- 05 이 글에서 질문 형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끈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지유는 독자가 영양 선생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중하고 예의 바른 존댓말을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② (나)에서 '1,797킬로그램', '1킬로그램당 1.4~4.0킬로그램'과 같은 수치를 활용하여 육식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다)에서 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⑤ (마)에서 진반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뒤 음식의 맛과 다양성을 높인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06 **서술형** 지유는 (바)에서 채식 식단을 도입하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모든 학생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51~053쪽

01 ① 02 ⑤ 03 그가 생각하는 월드컵의 목적은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었다. 04 ③ 05 ③ 06 ③
07 ⑤ 08 ⑤ 09 ㉠: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 ㉡: 한 달에 한 번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제공해 줄 것

- 01 <보기>의 독서 상황은 모둠별로 책을 정해 읽고 발표하는 것을 독서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모듬원의 관심과 흥미, 발표 기간 내 읽을 수 있는 분량, 독서 수준, 내용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출간되어 화제가 된 책인지는 독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글을 선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 02 (다)에 따르면, 질 리메는 1921년 국제 축구 연맹의 제3대 회장이 된 뒤 월드컵을 기획하기 시작했을 뿐, 첫 번째 월드컵을 개최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다)에 따르면, 질 리메는 1897년에 파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레드 스타(Red Star)'라는 이름의 스포츠 클럽을 조직하여, 신분과 계급을 불문하고 회원들을 받았다.

② (라)에 따르면, 질 리메는 1904년에 자신의 제2의 고향인 파리에서 '국제 축구 연맹(FIFA)'이 창설되는 것을 보고 스포츠 조직가로서의 의욕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③ (라)에 따르면, 질 리메는 1910년에 프랑스 최초의 축구 국가 리그를 창설하고 회장이 되었다.

④ (라)에 따르면, 질 리메는 1919년에 '프랑스 축구 연맹(FFF)'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 03 **서술형** (라)에 따르면, 질 리메는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을 월드컵의 목적으로 생각했다. 질 리메는 다른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고, 처음으로 축구와 연이 닿은 이후에 월드컵을 창설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04 글의 주제를 정리하는 것은 '읽는 중'이 아니라 '읽은 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및 조정 방법이다.

오답풀이 ① '차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 찾기'에 해당한다.
 ②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 찾아보기'에 해당한다.
 ④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 정리하기'에 해당한다.
 ⑤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에 해당한다.

- 05 8강 진출국의 대륙별 분포가 고른 것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 아니라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 06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으면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쓴이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07 탄소의 순환 과정을 보여 주는 글과 그림은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글에 활용하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④ (라)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② (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③ (다)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 08 이 글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육류 위주 식단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 이 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기대 효과를 덧붙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09 **서술형** 글쓴이는 (가)에서 육류 위주 식단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을, (나)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다)에서 한 달에 한 번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제공해 주기를 건의하고 있다.

2 서로를 잇는 이해와 소통



세상을 담은 문학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56쪽

01 배경 02 (1) ○ (2) × (3) ○ 03 ③

- 01 배경이란 소설 속의 인물들이 행동을 하고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공간, 또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말한다.

- 02 (1) 문학 작품에는 특정 시대의 이념, 제도, 관습, 생활상, 문물 등이 반영되어 있다. (2) 작품 속 등장인물의 대화 방식이나 표현법, 대화에 쓰인 단어 등을 바탕으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3) 등장인물의 행동, 등장인물 간 관계, 작품 속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03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른 작품의 주제나 의미, 창작 의도 등을 살펴본다. 또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작품의 주제나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제재 「수난시대」

학습곡

057~070쪽

060쪽 발단 소주제: 정거장

- ① 용머리재
- ② 웃음
- ③ 매개체
- ④ 고등어

063쪽 전개 소주제: 징용

- ① 가족
- ② 황혼
- ③ 모기

066쪽 위기 소주제: 전쟁

- ① 다리
- ② 국수

068쪽 절정 소주제: 위로

- ① 아들
- ② 전사
- ③ 다리
- ④ 고등어

070쪽 결말 소주제: 외나무다리

- ① 진수
- ② 용머리재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57~070쪽

058쪽 (1) 노상 (2) 고의춤

063쪽 (1) ○ (2) ○ (3) ×

065쪽 (1) 성한 (2) 을씨년스러운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57~070쪽

057쪽 01 ⑤ 02 전사 03 ④

058쪽 04 ④ 05 ⑤

059쪽 06 ④ 07 ④ 08 고등어

060쪽 09 ② 10 ④ 11 정거장 대합실

061쪽 12 ④ 13 ⑤ 14 ③

062쪽 15 ④ 16 비행장 17 ③

063쪽 18 ④ 19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

064쪽 20 과거 회상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21 ② 22 ⑤

065쪽 23 ④ 24 ⑤

066쪽 25 ① 26 국수 27 ⑤

067쪽 28 ① 29 ① 30 논두렁길

068쪽 31 가족, 민족 32 ① 33 ④

069쪽 34 외나무다리 35 ③ 36 ②

070쪽 37 ㄱ, ㄷ 38 ④ 39 ③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소설은 허구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전사'라는 말을 통해 진수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사'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음.'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통해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한국 전쟁 직후임을 추측할 수 있다.

03 만도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진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고 설레면서도 혹시나 진수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04 ㉠은 만도가 물 위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작품에서 복선의 역할을 하거나 불길한 사건이 생길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05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도는 진수가 자신처럼 신체의 일부를 잃었을까 봐 슬며시 걱정을 하고 있다.

06 '발단' ㉡에서 만도는 술에 취해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물에 굴러떨어져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외나무다리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만도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진 기억을 떠올리며 이를 창피해했다고 하였으므로, 만도에게 삶의 의지를 다지거나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발단' ㉡에는 만도 외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도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만도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한쪽 팔을 잃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물에 빠져 웃음거리가 될 뻔한 일을 괴로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웃어넘기는 모습에서 만도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08 진수에게 식사로 차려 줄 고등어를 정성껏 고르는 만도의 모습을 통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는 진수를 향한 만도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어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만도의 모습에서 만도의 비극적인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09 이 소설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다. 따라서 작품 속 등장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벌써 두 시 이십 분이러니 내가 잘못 보았나?'에 만도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③ '후유 숨을 내쉬었다.'와 같이 만도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④ '등골을 찬 기운이 짙 스쳐 내려가는', '시퍼렇게 굳어진' 등 감각적 표현을 통해 만도의 심리와 회상 속 장면을 효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⑤ '몇 싱교?', '그렁교.'와 같은 경상도 지역 방언을 활용하여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10 만도는 아들 진수가 혹여나 도착할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대합실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부터 확인했다.

11 만도는 정거장 대합실에 앉아 있으면, 등골을 찬 기운이 짙 스쳐 내려가는 과거의 일이 떠오른다고 하였다.

12 만도는 징용지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할 때 눈물을 글썽이지만, 차창 밖에 새로운 풍경이 보이자 금세 아무렇지도 않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 만도의 아내는 징용에 끌려가는 만도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다. 만도는 이러한 아내의 모습을 차마 보기 어려워져 돌아서 버렸다.

14 '전개' ㉢에서 배를 탄 사람들은 '제각기 붓짐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하였으므로 만도가 다른 사람의 붓짐을 챙겨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배 밑창에서 게워 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만도는 그저 꼴이 좀 멍했음 뿐 아무렇지도 않았으며, 한꺼번에 하루치 밥을 뚝딱해도 시원찮았다고 하였다.

② 갑판 위에서 보는 황홀한 일몰 광경에 만도는 어깨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고함을 질러댔다고 하였다.

- ④ 만도는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큰 배에 몸을 실어 본 것도 처음이었다고 하였다.
- ⑤ 섬에서 숨 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과 잠자리만 한 모기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15 ‘전개’ ④를 통해 만도는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섬에서 군용 비행장을 닦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만도를 비롯해 강제 징용된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고달픈 현실을 견뎌 내고 있으나, 부당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⑤ 만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제에 의해 고향을 떠나 섬으로 끌려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 노역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만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달픈 징용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이너마이트로 굴을 파는 위험한 작업에 동원되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혹독한 환경에 병까지 들었음을 알 수 있다.

16 ‘전개’ ④의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다.’라는 서술에서 만도가 섬으로 징용을 가서 일본의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7 ‘전개’ ⑤에서 공습경보가 나면 모두 엎드려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거나 공습경보의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놓치면 아쉬워했다고 하였다.

18 ‘전개’ ⑥에는 만도가 팔을 잃게 된 비극적인 사고를 암시하는 복선이 나타난다. 하지만 심지에 불이 붙자 굴 밖으로 몸을 날린 만도의 행동은 불행을 암시하는 징조가 아니라 여느 날과 다른 다이너마이트 설치 작업 과정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⑤ 평소와 달리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쑤시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등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만도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꺼림칙하다’는 인물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만도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이너마이트 폭파 작업을 앞두고 폭파에 필요한 성냥불이 잘 붙지 않는 것은 앞일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19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굴 밖으로 나오던 만도는 갑작스러운 공습에 놀라 굴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이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여 한쪽 팔을 잃게 되었다.

20 기차의 기적 소리를 계기로, 만도가 과거 회상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21 ⑥에서 만도는 기차가 도착하여 곧 아들을 만나게 될 순간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기관차의 생소한 모습 때문에 긴장한 것이 아니다.

22 만도는 다리를 잃은 아들의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진수에게 모질게 말하였다.

23 만도는 진수와 의 만남을 기대했지만,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에 속상해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앞장서 걷고 있다. 진수는 다리를 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과 아버지에게 짐이 된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걷고 있다.

24 평소 만도는 <보기>와 같이 술방을 들어서며 농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위기’ ④에서 만도는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다.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속상했기 때문에 속상한 나머지, 평소처럼 여편네에게 우스갯소리를 건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5 진수는 만도의 부름에 아무런 대꾸 없이 어기적어기적 다가왔다.

오답풀이 ② 만도는 술기가 돌아 속상한 마음이 풀려 진수를 위해 국수를 곱빼기로 주문하였다.

③, ⑤ 만도는 술기운에 마음이 풀렸지만, 아직 진수의 상황을 마음 편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아들이냐고 묻는 주막집 여편네의 질문에도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거렸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④ 만도는 여편네에게 국수를 시키며 “곱빼기로 잘 좀……. 참지름도 치소, 잉?”이라고 덧붙여, 진수의 국수를 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26 만도는 주막집 여편네에게 진수의 국수를 특별히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는 진수를 향한 애정이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27 한쪽 다리밖에 없는 진수는 방문턱 위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과 같이 말하였다.

28 주막집에 올 때와 달리 만도는 진수를 앞세우고 자신이 뒤에서 따라가며 진수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풀이 ② 만도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라며 자신과 아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만도는 술기운이 한껏 돌아 마음이 누그러지며 ‘니 우짜다가 그래 됐노?’라고 진수에게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사연을 묻고 진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

④ 진수는 만도에게 한쪽 다리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⑤ 진수는 만도에게 전쟁 중에 수류탄 쏘아리에 맞은 다리가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 다리를 잃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29 진수는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더.”라고 말하며 한쪽 다리 없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고 있다.

30 만도는 눈두렁길에서 진수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된 사연을 듣고, 미래를 걱정하는 진수를 위로하며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31 이 글은 아버지 만도와 아들 진수가 두 세대에 걸쳐 징용과 전쟁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 내용을 보

여 주고 있다. 이는 두 세대가 겪은 수난이 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임을 상징한다.

- 32 진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 아버지의 위로에 동조하는 수용적 태도를 보일 뿐이다.

오답 풀이 ② 만도는 다리가 없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한탄하는 진수에게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위로하고 있다.

③ 진수는 서로 협력하여 상황을 극복하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인다.

④, ⑤ 만도는 진수에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랭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자신과 아들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여 불행을 극복하려는 의지적·적극적·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 33 고등어는 만도가 진수를 위해 산 것으로, 진수를 생각하는 만도의 애정이 담긴 소재이다. 또한 진수가 만도를 돕기 위해 고등어를 들어 주는 모습을 통해 고등어가 부자간의 화합과 협력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34 이 글에서 한쪽 팔이 없는 만도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에게 외나무다리는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자, 서로 힘을 합쳐 수난을 극복하는 현장이다. 또한,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화합을 통해 시련을 이겨 내리라는 만도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35 진수는 한쪽 다리가 없어 지팡이를 짚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기가 힘들 것 같기에 걱정을 하고 있다.

- 36 외나무다리를 건너가기 위해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들고, 만도는 진수를 업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 37 만도는 진수의 처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ㄱ), 진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하며 아버지에게 미안해하고 있다(ㄷ).

- 38 이 소설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들에 대해 논평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에서는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과 그들을 내려다보는 용머리재의 풍경을 제시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선이 인물들을 보는 근경에서 우뚝 솟은 용머리재인 원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② 서술의 초점이 인간인 만도와 진수에게서 자연인 용머리재로 전환되고 있다.

③ 용머리재가 만도와 진수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수난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두 사람이 협력해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우리 민족이 협력해 역사적 비극을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로 확대되며 여운을 남긴다.

- 39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팔을 잃은 만도와 한국 전쟁에서 다리를 잃은 진수가 협력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이 역사적 시련을 연대로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활동

072~075쪽

- 072쪽 1 다리
073쪽 2 징용, 상이군인
074쪽 3 고등어
075쪽 4 협력

학습목

072~075쪽

- 073쪽 ① 주제
074쪽 ② 극복
075쪽 ③ 시간적, 차이

간단 체근 활동 문제

072~075쪽

- 072쪽 01 ⑤ 02 ② 03 ①
073쪽 04 ⑤ 05 ③ 06 ④
074쪽 07 외나무다리 08 ⑤ 09 ⑤
075쪽 10 ⑤ 11 ②

- 01 만도는 공습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부상을 당한 것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진수는 한국 전쟁에서 수류탄 파편에 맞아 한쪽 다리를 잃었다.
②, ④ 만도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되어 강제 노동을 하다가 왼쪽 팔을 잃었다.

- 02 자신은 한쪽 팔을 잃고, 아들은 한쪽 다리를 잃은 불행 속에서도 만도는 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만도는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3 진수는 한쪽 다리를 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04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북해도나 남양 군도, 만주 등으로 징용에 끌려갔다. 그런데 징용을 가는 장소는 사람들 각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강제로 징용에 끌려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청거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고 아무개는 소식이 없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많은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징용지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숨 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 잠자리만 한 모기떼였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05 전사(㉠), 징용(㉡), 전쟁(㉢), 수류탄 쏘가리(㉣)는 전쟁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섬(㉤)은 자연물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다.

- 06 문학사적 가치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롯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다.
- 07 외나무다리는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가 혼자서는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08 진수는 고등어를 들고, 만도는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데 이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시련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09 작가는 진수가 고등어를 들고,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 화합과 협력을 통한 시련의 극복과, 우리 민족의 수난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 10 「수난이대」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비극적 현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서로 협력하며 시련을 극복해 가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항 정신이 아니라, 수난 속에서도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이다.
- 오답 풀이** ① 만도와 진수가 2대에 걸쳐 수난을 겪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만도와 진수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아버지인 만도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아들인 진수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수난을 겪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④ 외나무다리에서 만도가 다리를 잃은 아들을 업고 진수가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들기 어려운 고등어를 들어 주는 모습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11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방법에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의 차이를 정리하거나, 현재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작품의 주제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등의 방법이 있다. 과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압축 파일

077쪽

- ① 팔 ② 용머리재 ③ 비관 ④ 장용 ⑤ 외나무다리
 ⑥ 극복

발전 활동

078~079쪽

- 079쪽 1 조선 2 회유, 거절

학습곡

078~079쪽

- 078쪽 ① 죽어
 079쪽 ② 충절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8~079쪽

- 078쪽 01 ③ 02 만수산 드령침 03 ③
 079쪽 04 ① 05 조선 06 ①

- 01 「하여가」와 「단심가」는 고려 말 새로운 왕조 건립을 두고 갈등하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두 작품은 일상의 소박한 정서나 현실에 대한 저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왕조 교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각각 설득과 충절을 드러내고 있다.
 ④ 「하여가」는 함께 어울려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고 설득하고 회유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⑤ 「단심가」는 자신의 변함없는 충절과 지조를 단호하게 밝히며 상대의 권유를 거부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 02 「하여가」에서 화자는 자신과 정치적 뜻이 다른 상대에게 현실과 타협하고 어울려 가까이 지내자는 의도를 「만수산 드령침」에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 03 「단심가」는 새로운 왕조를 만들 것을 제안하는 「하여가」에 대한 답가이다. 화자의 태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서로 어울려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만수산 드령침」에 빗댄 「하여가」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오답 풀이** ①, ④ 이 시가에서 화자는 「죽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직설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고려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다.
 ② 「백골 → 먼지 → 냇」으로 이어지는 점층법을 통해 죽음 이후에도 변치 않는 충절을 나타내고, 「임 향한 붉은 마음이야 변할 줄이 있으리」에서 설의법을 통해 주제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하여가」에서는 일백 번 죽고 백골이 먼지가 되는 등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충절을 부각하고 있다.
- 04 활동 1의 제시 글에서 이성계가 외적을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고 하였으므로, 외적의 침입이 없던 시기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왕의 힘은 약해졌고 이성계의 힘은 날로 커졌다고 하였다.
 ③ 고려의 충신 정몽주는 이성계를 왕으로 세워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했다고 하였다.
 ④ 활동 1의 제시 글에서 고려 말 왕의 힘은 약해지고 외적을 물리쳐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이성계의 힘은 날로 커졌으며, 새 왕조 건국을 둘러싸고 이성계 세력과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대립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성계와 뜻을 함께한 세력들이 이성계를 왕으로 세워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다고 하였다.
- 05 이방원은 고려를 지키려는 정몽주를 회유하여 이성계를 왕으로 하는 조선을 건국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의도가 「하여가」에 담겨 있다.
- 06 「단심가」의 내용으로 보아, 정몽주는 새로운 왕조의 건설에 반대하며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절개를 지키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80~083쪽

-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만도가 한쪽 팔을 잃게 된 사건 06 ③ 07 ② 08 진수는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만도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09 ③ 10 진수가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들고,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갔다. 11 ④ 12 ⑤ 13 ③

01 이 글에는 ‘전사’ 같은 단어로 전쟁의 흔적이 암시될 뿐, 역사적 사건을 직접 나열하여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도가 진수도 자기처럼 다쳤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부분에서, 진수의 비극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삐익 기적 소리’,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오르며’, ‘어깨 밑으로 덜렁 처져’,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 등 청각·시각·촉각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③ 쉬지 않고 고개를 오르는 행동, 고등어를 사는 행동 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은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와 상황을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난다.

02 (나)에서 만도는 ‘엄살스런 놈이 견뎌 냈을 턱이 없고말고’라고 생각하며 진수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기를 기대하고 있다.

03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죽었다는 뜻인 ‘전사’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 전쟁 직후라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04 이 글에서 징용자들은 공습의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하며, 만도는 그 와중에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으므로, 징용지에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정거장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 나갔지만,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징용된 사람들은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었으며, 물도 입에 맞지 않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도저히 견디어 낼 것 같지 않았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만도와 징용된 사람들은 섬에 비행장을 닦는 일을 하였다.

④ (다)에서 만도는 공습의 위험에 노출된 채 굴을 뚫는 작업을 하다가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를 당하였다.

05 **서술형** ④에서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려는 만도는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고, 모기에게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찌시고, 그 자리를 긁어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며, 성냥불이 자꾸 꺼지는 등 평상시와 다른 일들을 겪는다. 이는 앞으로 만도에게 닥칠 불행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며, 만도는 이후 다이너마이트 폭파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된다.

06 ㉔은 만도가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습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만도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상황이다.

07 (가)에서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고 충격을 받고, (나)에서 이러한 비극이 아들에게까지 미친 것에 대한 분노와 속상함을 드러낸다. 이후 (다)에서는 주막집에 들러 속상한 마음을 진정하고 진수를 위해 국수를 주문한다.

08 **서술형** (라)에서 진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며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만도는 이러한 진수에게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살 수 있다고 하며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위로를 하고 있다.

09 ㉑에서 만도는 주막집 여편네에게 진수를 위한 국수를 주문하며 곱빼기로 잘 만들어 주고, 참기름도 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장면에는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애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10 **서술형** 이 글에서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에게 시련과 고난의 공간이자, 수난 극복의 현장이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들고, 만도는 진수를 업는 방법으로 서로 협력함으로써 외나무다리라는 시련을 극복하고 있다.

11 만도가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은 부자가 협력하여 시련을 극복하는 장면으로, 타인에 대한 의존을 비판하기 위한 장면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을 통해 한국 전쟁 직후의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부자가 힘을 합쳐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통해 독자는 공동체의 협력이 지닌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③ 이 글에는 아들 진수를 향한 아버지 만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수난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⑤ 서술의 초점이 인간에서 용머리재로 바뀌고,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전환되는 장면에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민족적 차원으로 확대하며 여운을 남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붉은 마음(㉔)’은 고려 왕조를 향한 정몽주의 변함없는 충성과 지조, 절개를 상징한다.

오답 풀이 ① ‘드렁철(㉑)’은 서로 어울려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② ‘백 년(㉒)’은 새로운 왕조에서 오랫동안 함께 어울리자는 의미가 담긴 시어이다.

③, ④ ‘백골(㉓)’과 ‘먼지(㉔)’는 화자가 죽은 뒤의 극한 상황을 점층적으로 표현한 시어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충절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충절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3 <보기>의 (가)는 「하여가」이고, (나)는 「단심가」이다.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방원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려 했고 정몽주는 이를 반대했다. 「하여가」에서 이방원이 드렁철이 얹히듯 우리도 함께 얹혀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은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정몽주에게 새로운 왕조 건립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회유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 조정하기

활동

084~093쪽

- 086쪽 1 공부, 차별
- 087쪽 2 엄마
- 3 오해
- 090쪽 1 비난, 책임
- 091쪽 2 허락
- 3 이해
- 093쪽 4 입장

학습목

084~093쪽

- 087쪽 ① 감정
- ② 원인
- 089쪽 ① 객관적, 구체적
- 091쪽 ② 이해, 존중
- 093쪽 ① 차이, 협력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84~093쪽

- 084쪽 01 ④ 02 ②
- 085쪽 03 ② 04 ⑤
- 086쪽 05 ③ 06 ① 07 ②
- 087쪽 08 ④ 09 ③ 10 ⑤
- 088쪽 11 주관 12 ③ 13 ③
- 089쪽 14 ④ 15 ⑤ 16 ⑤
- 090쪽 17 ② 18 ④ 19 ③
- 091쪽 20 ① 21 ③
- 092쪽 22 ⑤ 23 ⑤
- 093쪽 24 ③ 25 ②

01 (가)에서 영훈과 엄마는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엄마와 영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02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새 옷을 사 주고 자신과 차별한다고 생각하여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영훈이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③ 영훈은 엄마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을 뿐 엄마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
 ④ 영훈은 엄마의 차별에 반발하고 있을 뿐, 일관성 없는 훈육 방식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영훈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나)에서 나리는 영훈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영훈의 생각과 감정을 잘 모르는 엄마와 다시 대화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04 엄마는 영훈이 나리에게 털어놓은 말을 통해 영훈의 속마음을 알게 되며 ㉠에서 자신이 그동안 영훈의 생각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05 엄마는 영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수능을 앞두고 쓸데없는 것에나 관심을 가진다며 영훈을 나무랐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훈의 생각을 먼저 파악하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6 영훈은 엄마가 나리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하고 있으며, 엄마가 나리와 자신을 차별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지니고 있다.

07 영훈과 엄마는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입장만 이야기하였다. 또 상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08 나리가 영훈에게 엄마와 대화할 것을 권유한 것은 영훈이 자신에게 말한 내용을 엄마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09 영훈이 엄마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엄마는 영훈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0 진솔한 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어 상대방이 이를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갈등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② 갈등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③ 갈등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④ 갈등 상황에서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상대와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이해할 수 있다.

11 민수는 사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는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12 미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에서 “괜찮지?”라고 하여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3 [C]에서 현수는 미래에게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ㄱ), 미래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ㄴ).

- 오답 풀이** ㄴ. 현수는 미래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ㄷ. 현수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였지만 미래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공감하지는 않았다.

- 14 <보기>에서 진희는 일반화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민주는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로 양보하거나 의논할 가능성을 줄여 갈등의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오답 풀이 자유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상대가 갈등의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5 세희는 헤지의 실력과 노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헤지의 의견과 감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헤지는 달리기 종목에 대표로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는 세희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 16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대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17 ㉠의 발화에서는 친구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서 문자에 답을 안 한 것이라며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

- 18 ㉠의 발화에서는 상대방에게 비난과 공격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비난과 공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9 ㉡과 마찬가지로 ㉢ “이렇게 매번 안 해 오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도 상대를 비교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여 고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 20 <보기>에서의 원래 발화에서 화자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고친 발화에서 화자는 자신의 행동의 잘못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

- 21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여 대화하면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의 효과와 관련이 없다.

- 22 <보기>에서 준환은 다미의 의견을 참 잘 추는 친구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교하면서 표현하고 있으며, 리허설이 끝나지 않은 원인을 다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23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는 준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대형을 함께 조정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표현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② 대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표현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③ 상대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만 내세우면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④ ‘결과가 나쁘면 네 탓’이라고 상대를 협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으므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이다.

- 24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를 구성할 때에는 인물의 생각, 감정, 기대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서로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호 협력적인 태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각자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도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과 거리가 멀다.

- 25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 압축 파일

095쪽

- ① 차이 ② 조정 ③ 객관적 ④ 존중 ⑤ 관계

발전 활동

096~099쪽

098쪽 1 경비원

099쪽 2 갈등

3 사과

학습곡

096~099쪽

098쪽 ① 미안하다

② 사정

③ 잘못

간단 체근 활동 문제

096~099쪽

096쪽 01 ⑤ 02 ④ 03 ①

097쪽 04 ③ 05 사과 06 ④

098쪽 07 ⑤ 08 ⑤ 09 ③

099쪽 10 ⑤ 11 ② 12 ⑤

- 01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드러나는 글이다. ⑤는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의 줄거리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③ 이 글에는 글쓴이인 ‘나’의 구체적인 경험과, 경험에 대한 ‘나’의 감정이 드러난다.

④ 이 글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2 ‘나’는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해진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영수에게 전화하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⑤ ‘나’는 영수에게 말더듬이 증상이 있는지 모르고, 서훈이 영수 대신 책을 읽은 상황을 학생들의 반향으로 여겼다.

② '나'는 영수에게 어떻게 사과를 할지 여러 궁리를 하다가 정말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

③ '나'는 영수에게 사과하지 않기 위한 여러 구실을 생각해 내었다.

03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피할 여러 구실을 찾았다. 그러나 영수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4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나'를 바로 차에 태우기 위해 현관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린 것이다.

05 아버지는 현관 근처에 차를 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차를 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고, 경비원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기다리느라 현관 근처에 차를 댄 사정도 모르고 화를 내서 미안하다며 사과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와 경비원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사과하고 있다.

06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표현이지, 상대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과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일을 계기로 자신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하기로 하였다.

08 '나'는 처음에 사과하는 것을 꺼리며 아버지가 경비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조차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아버지의 말을 통해 사과 가치를 깨닫고 영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로 결심한다.

09 아버지는 경비원의 원칙을 이해하고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다. 또한 '나'에게 잘못된 일을 사과하는 데에 무슨 채신이 있냐고 하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이 서로 사과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태도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11 ㉠은 영수에 대한 '나'의 사과의 표현이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영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1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는 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00~102쪽

- 01** ⑤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상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09** ⑤ **10** ③
11 이분이려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01 이 글의 (다)에서 엄마가 “너희 오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나도 몰랐고…….”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엄마는 영훈의 생각을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2 영훈은 엄마가 나리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하고 있으며, 엄마가 나리와 자신을 차별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03 ⑤는 나리와 영훈을 비교하며 영훈을 비난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담긴 표현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04 자신의 입장만 끝까지 주장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영훈이 엄마에게 “막말하고 대놓고 차별하면서”와 같이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②, ③ 영훈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을 키운 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다.

⑤ 영훈이 사건을 ‘차별’, ‘애물단지’ 등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한 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05 ⑤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겠다고 하며 자신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06 <보기>에서 민수는 사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07 <보기>는 허락 없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한 친구에게 비난과 공격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

08 **시술형**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09 이 글에서는 '나'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주차 문제로 경비원과 문제 상황이 있었지만 사과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글쓴이의 내면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나)에는 '나'가 영수 대신 책을 읽은 서훈을 혼낸 일화가, (다)와 (라)에는 아버지에게 경비원이 화를 낸 일화가 나타나고 있다.

③ 아버지와 경비원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와 경비원이 갈등을 겪는 구체적 상황이 나타난다.

④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10 아버지는 경비원이 사과하기 전부터 이미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경비원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순간 사과를 하였다.

11 **시술형** 경비원은 '나'의 몸이 불편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현관에 차를 댄 사정을 이해하게 되어 사과한 것이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03~107쪽

-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6 눈앞에
우뚝 솟은 웅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07 ② 08 ① 09 ③ 10 ② 11 ⑤ 12 ④
13 ③ 14 미래야, 네가 매번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나. 앞으
로는 약속 시간을 지켜 주었으면 해. 15 ⑤ 16 ①

- 01 이 글에 등장하는 소재(‘시냇물’, ‘외나무다리’, ‘소맷자락’ 등)는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일상적 소재이며, 비현실적 소재가 활용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가)에서 만도는 아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나)에서는 진수가 병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혹시 자신처럼 몸이 불편해지지 않았는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 03 만도는 외나무다리 아래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물속에 몸을 숨겼으므로, 외나무다리는 신체적 결함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게 해 주는 공간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외나무다리는 한쪽 팔이 없는 만도가 중심을 잡고 건너기 어려운 대상으로, 만도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② 만도는 외나무다리를 조심히 디디며 과거에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물에 굴러떨어진 일을 회상한다.
⑤ 외나무다리에서 굴러떨어진 일을 회상하며 웃는 모습을 통해 만도의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04 ‘전쟁’, ‘수류탄 쪼가리’ 등의 단어를 통해 이 글의 배경이 한국 전쟁 직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처지를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를 살펴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전쟁 직전이 아닌 전쟁 직후의 상황이 드러나며, 혼란스러운 도시 풍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글에 서구 문물로 인한 가치관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진수는 전쟁 직후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 글은 한국 전쟁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으므로 신분 제도에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05 진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만도의 말을 듣고 만도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만도를 원망하는 냉소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06 **서술형** 이 글의 결말 부분인 (라)에서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시선을 근경인 인물에서 원경인 산으로 옮기며 여운을 남기고, 개인의 고난을 민족의 역사적 수난으로 확장하여 보여 주고 있다.
- 07 ㉠에서 만도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현실에 대해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08 이 글에서 만도와 진수는 서로 힘을 합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힘을 합쳐 노력하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 있다.
- 09 이 글은 역사적 비극 앞에서도 협력하여 시련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혼자 힘’으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나 ‘독립적인 태도’는 이 글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 10 (가)에서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새 옷을 사 준 것을 차별로 받아들여 갈등을 일으켰다. 영훈이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영훈과 엄마는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
③ 영훈과 엄마는 상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
④ 엄마는 시험을 앞둔 영훈이 새 옷에 관심을 두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영훈이 공부에만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⑤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새 옷을 사 준 일을 계기로 엄마가 나리만 예뻐하고 자신을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다.
- 11 나리는 (나)에서 영훈의 감정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ㄷ), (다)에서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물으며 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엄마가 영훈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지, 나리가 영훈의 속마음을 엄마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다.
ㄴ. 나리는 엄마와 영훈 사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 1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13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는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는 표현이다.
- 14 **서술형** <보기>에서 현수는 미래가 매번 약속 시간에 늦어서 화가 났지만 이를 표현하지 않았고, 미래는 그런 현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미래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 15 헤지는 “기분 나빠.”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세희의 일방적인 태도에 반발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숨기거나 세희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볼 수 없다.
- 16 <보기>에서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 세상과 주고받는 말과 글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 활용하기

활동

110~121쪽

- 112쪽 1 제힘, 당한다
- 113쪽 1 잡혔다, 만들어졌다
- 114쪽 2 사실, 책임, 객관적
- 115쪽 1 형식, 라고
- 117쪽 2 이것
- 3 어조
- 119쪽 1 환경, 해결, 의도
- 120쪽 2 짝한, 왜곡
- 121쪽 3 직접, 피동

학습곡

110~121쪽

- 112쪽 ① 능동, 피동
- 113쪽 ② 부사어, 명사
- 114쪽 ③ 대상
- 115쪽 ① 내용
- 117쪽 ② 큰따옴표
- 121쪽 ① 불필요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10~121쪽

- 118쪽 (1) 주범 (2) 교육지책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10~121쪽

- 110쪽 01 ④
- 111쪽 02 ⑤ 03 ⑤
- 112쪽 04 ④ 05 피동 06 능, 능, 피
- 113쪽 07 ④ 08 ⑤ 09 ②
- 114쪽 10 ④ 11 ③ 12 책임
- 115쪽 13 형식 14 ③ 15 ④
- 116쪽 16 ② 17 오늘 18 ②
- 117쪽 19 ④ 20 동생이 어제 나에게 오늘 학교에 가냐고 물었다. 21 ⑤
- 118쪽 22 ④ 23 @: 수프 반, 물 반, ⑥: 국물
- 119쪽 24 ⑤ 25 주체, 의도 26 ②
- 120쪽 27 생각된다 → 생각한다 28 ⑤ 29 ③
- 121쪽 30 ① 31 ⑤

- 01 ④는 '윤재'라는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체보다 상황에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과 ㉡은 모두 '교실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동일한 사건을 전달하지만, 전달하는 형식만 서로 다르다.
- 03 ㉢는 누가 유리창을 깬지보다 유리창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는 표현으로, 윤재가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감추는 효과가 있다.
- 04 ㉣은 피동 표현으로,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아이'가 부각되는 표현이다. 행위의 주체인 '모기'가 부각되는 것은 능동 표현인 ㉠의 특징이다.
- 05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은 '피동 표현'이다.
- 06 '토끼가 풀을 뜯는다.'는 토끼가 풀을 뜯는 동작을 제힘으로 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능동 표현이며, '눈이 온 마을을 덮었다'도 눈이 마을을 덮는 동작을 제힘으로 한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능동 표현이다. 반면 '동생이 누나에게 업혔다'는 주어(동생이)가 다른 주체(누나)에게 업는 동작을 당한다는 의미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 07 '쫓다'를 피동 표현으로 만들 때 붙는 접사는 '-기-'이다.
- 08 '결정했다'는 명사 '결정'에 접사 '-하다'가 결합한 능동사이다. 이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명사 '결정'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결정되었다'로 만들면 된다.
- 오답풀이** ① 능동사 '끓다'에 접사 '-가-'를 결합해 '끓기다'로 만든다.
 ② 능동사 '달다'에 접사 '-하-'를 결합해 '달히다'로 만든다.
 ③ 능동사 '걸다'에 접사 '-리-'를 결합해 '걸리다'로 만든다.
 ④ 능동사 '만들다'에 '-어지다'를 결합해 '만들어지다'로 만든다.
- 09 <보기>에서 '친구'는 목적어인 '친구의 강아지를'의 일부로, 이를 능동 표현의 목적어 '친구의 강아지를'은 피동 표현에서 주어가 된다. 따라서 '친구'에 '를'을 결합해 목적어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0 ㉠은 능동 표현, ㉡은 피동 표현이다. 식탁을 안 닦은 행위의 주체에 주목하게 하는 ㉠ 능동 표현보다 식탁이 안 닦인 사실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 피동 표현이 상대방의 기분을 더 배려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11 ㉢는 피동 표현으로 전망하는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 반면, ㉣는 능동 표현으로 전망하는 주체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가 아니라 ㉣이다.
- 12 피동 표현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밝히지 않고자 할 때 그 주체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13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

이나 글을 인용할 때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다.

- 14 ㉠은 “민주는 키가 커.”라는 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조사 ‘라고’가, ㉡은 현지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조사 ‘고’가 들어가야 한다.
- 15 ㄴ과 ㄹ은 인용하는 말을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직접 인용 표현이며, ㄱ과 ㄷ은 인용하는 말을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간접 인용 표현이다.
- 16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저’는 ‘자기’로, 종결 표현 ‘-어요’는 ‘-다’로 바뀐다. 또한 큰따옴표는 사라지고 조사 ‘라고’는 ‘고’로 바뀐다.
- 17 직접 인용 표현에서의 ‘내일’은 재호가 말한 시점(어제)을 기준으로 한 미래이다. 이를 인용하는 시점으로 바꾸면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 된다. 따라서 간접 인용 표현의 빈칸에는 ‘오늘’이 들어가야 한다.
- 18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인칭 대명사 ‘자기’는 ‘나’로, 인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인 ‘그곳’은 준호의 관점인 ‘이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큰따옴표를 넣고, 조사 ‘고’를 ‘라고’로 바꾸어야 한다.
- 19 ㉠을 ㉡으로 바꿀 때, 발화 시점 ‘어제’의 ‘내일’은 인용 시점에서 ‘오늘’이 된다. 따라서 ㉠의 ‘내일’은 ㉡의 ‘오늘’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야 한다.
- 20 <보기>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려면, 큰따옴표를 없애고 종결 표현 ‘-아’를 ‘-냐’로, 시간 표현 ‘내일’을 ‘오늘’로,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 21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그대로 담겨 표현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간접 인용)이 아니라 ㉠(직접 인용)이다.
- 22 국물의 염분 탓에 음식물 쓰레기 분해 미생물이 죽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물의 염분이 미생물을 과다 번식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칼럼에서 라면 국물이 토양에 스며들면 삼투압 현상으로 토양의 수분이 짠 국물을 머금은 토양으로 이동하여 식물이 말라 죽는다고 하였다.
② 칼럼에서 까마귀, 오소리, 족제비 등이 오염된 건더기를 먹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칼럼에서 라면 건더기가 동물들의 몸에 쌓이면 먹이 사슬을 통한 2차 피해까지 유발된다고 하였다.
⑤ 칼럼에서 라면 건더기가 동물들의 몸의 내부에 쌓이면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 23 이 칼럼에서 한라산의 컵라면 국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수프 반, 물 반’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컵라면을 절반 분량만 만들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모두 마시고 가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 24 이 칼럼에서 글쓴이는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관리 당국의 대책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 미흡한 대처를 직접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② 글쓴이는 한라산 등반을 제한하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지 않다.
③ 글쓴이는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글쓴이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다루고 있을 뿐, 과거의 사례를 들어 환경 오염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 25 이 글에는 제목과 본문에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는 특정 대상을 비난하기보다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26 ㉠은 인터뷰 내용을 간접 인용한 표현이다.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살려서 인용하는 것은 간접 인용 표현이 아니라 직접 인용 표현의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은 큰따옴표 없이 인터뷰 내용을 간접 인용한 표현이다.
③ ㉠은 인터뷰에서 ‘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에는’이라는 특정 기간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인용하였다.
④ ㉠은 인터뷰에서 ‘60리터짜리 통이 하루에 2개 정도 차는’으로 언급된 수치를 ‘약 120리터’로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⑤ ㉠은 특정 시기(‘봄철같이 꽃 피는 시기’)의 상황을 일반적 상황인 것처럼 인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였다.

- 27 생각은 스스로 하는 것이므로 ‘생각된다’는 부적절하며, 이를 능동 표현인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 28 ‘불려지다’는 ‘부르다’에 접사 ‘-리-’를 붙인 뒤, 또다시 ‘-어지다’를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불려진다’는 ‘불린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보이다’는 능동사 ‘보다’에 피동 접사 ‘-아-’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새겨지다’는 능동사 ‘새기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③ ‘들리다’는 능동사 ‘들다’에 피동 접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④ ‘열리다’는 능동사 ‘열다’에 피동 접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 29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의도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면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0 <보기>의 문장에는 ‘불리어진다’라는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를 ‘불린다’와 같이 적절한 피동 표현으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보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래 말의 왜곡 여부나 인용 부호 사용 여부, 출처 표시와 무관하다.

⑤ '불리어진다'는 이중 피동 표현이지,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아니다.

- 31 직접 인용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그대로 담아 생생한 느낌을 전달한다. <보기>는 직접 인용을 통해 이상 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는 객관적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은 간접 인용 표현의 효과이다.
 ③ <보기>는 특정 대상을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다.
 ④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는 것은 능동 표현의 효과이다.

*** 입축 파일** 123쪽

① 제힘 ② 주어 ③ 되다 ④ 객관적 ⑤ 형식
 ⑥ 고

발전 활동 124~125쪽

125쪽 1 진행
 2 쓰여진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24~125쪽

124쪽 (1) 견해 (2) 어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24~125쪽

124쪽 01 ③ 02 ④
 125쪽 03 ① 04 ④

- 01 이 글에서는 '-어지다'가 '회복되어진다'와 같이 어떤 상태의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 이중 피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①에서 '잊혀진'처럼 피동이 두 번 이어진 표현을 이중 피동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② ②에서 이중 피동은 우리말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②에서 국립국어원이 이중 피동을 잘못된 어법으로 보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④에서 '잊혀진 계절', '물려진 진실'과 같은 말은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표현이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02 글쓴이는 이중 피동에 관한 두 가지 견해(국립국어원의 입장과 일부 국어학자의 견해)와 어감의 차이를 인식하되, 공식적으로는 이중 피동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국립국어원이 이중 피동을 잘못된 어법으로 본다고 소개하며 공식적으로는 고쳐 써야 한다고 하였다.

- ② 글쓴이는 이중 피동이 우리말에서 흔히 사용되는 유형이라 하였을 뿐, 문학 작품에서만 사용된다고 하지 않았다.
 ③ 글쓴이는 '잊혀진 계절', '물려진 진실' 같은 이중 피동 표현이 대중에게 익숙해져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⑤ 글쓴이는 일부 국어학자들이 이중 피동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03 이 글에는 이중 피동 표현이 문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견해와, 대중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어감을 존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다. <보기>는 잘못되었다는 견해이므로, 이에 반대하려면 대중이 느끼는 어감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이중 피동은 우리말에서 흔히 사용하는 유형이며, '잊혀진 계절' 같은 표현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③ '잊혀진'이 '잊힌'보다 격식 있는 표현이라는 내용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잊힌'과 '잊혀진'은 어감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⑤ 이중 피동을 국립국어원은 잘못된 어법으로 본다고 하였다.

- 04 ㉠(쓰여진)은 문학적 효과를 위해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공식적인 언어 규범에서는 이를 고쳐 써야 하는 이중 피동 표현으로 본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26~127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① 06 친구가 어제 나에게 오늘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07 ⑤
 08 ④ 09 ⑤ 10 ③

- 01 ㉠은 ㉡과 달리 유리창을 깬 행위의 주체인 윤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행위의 주체보다 상황 자체에 초점을 맞춘 표현은 ㉠이 아니라 ㉡이다.

- 02 능동 표현이 피동 표현으로 바뀔 때 행위의 초점은 새로운 주어에 놓인다. ㉢의 주어는 '포수가'이므로 '포수'가 강조되고, ㉣의 주어는 '야구공이'이므로 '야구공'이 강조된다.

- 오답 풀이** ① 능동사 '잡다'에 피동 접사 '-하-'가 결합하면 피동사 '잡히다'가 된다.
 ② 능동 표현의 주어 '포수가'는 피동 표현에서 부사어 '포수에게'로 바뀐다.
 ③ 능동 표현의 목적어 '야구공'은 피동 표현에서 주어 '야구공이'로 바뀐다.
 ④ ㉢는 주체 '포수'가 잡는 행위를 제임으로 하고, ㉣는 주체 '야구공'이 포수에게 잡히는 행위를 당하고 있다.

- 03 능동 표현의 목적어 '친구의 고집'은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 '나의 고집이 친구에 의해 꺾였다.'로 바꾸면 능동 표현과 의미가 달라지므로, '친구의 고집이 나에 의해 꺾였다.'로 바꾸어야 한다.

04 피동 표현은 행위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 또는 글에 끌어 쓰는 표현을 말한다(해민). 이 중 간접 인용 표현은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하는 방식이다(지열).

오답풀이 성우: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그대로 가져오는 표현이다.

민우: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라고'를 붙인다.

06 **세술형** <보기>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려면 시간 표현 '내일'을 '오늘'로, 종결 표현 '-어'를 '-다'로,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고 큰따옴표를 없애야 한다.

07 제시된 그림에서 간접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보다 내용을 간결하고 매끄럽게 전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용하는 말의 어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간접 인용 표현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08 '믿겨지지'는 '믿다'에 접사 '-기-'를 붙인 뒤 '-어지다'를 덧붙인 이중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 표현은 잘못된 피동 표현이므로 이를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만들어졌다'는 '만들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확정되었다'는 명사 '확정'에 접사 '-되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③ '새겨졌다'는 '새기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⑤ '잡히고'는 '잡다'에 접사 '-하-'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09 <보기>의 칼럼에서는 표제('버려지는')와 내용('유발된다') 등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과 ㉡은 모두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즉 문제를 유발하는 주체인 등산객들을 명확히 밝힌다고 볼 수 없다.

② 사건을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는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③ ㉠과 ㉡의 행위를 하는 주체는 모두 기자와 관련이 없다.

④ ㉠과 ㉡은 모두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므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힌다고 볼 수 없다.

10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문을 수정하는 것은 원저자의 생각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인용 윤리에 어긋난다.

오답풀이 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② 직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용한 부분에 큰따옴표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원래 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원저자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 쓰기

활동

128~142쪽

- 131쪽 2 관람객
- 132쪽 3 끝
- 135쪽 4 출처
- 136쪽 1 한자어, 가치, 지도
- 139쪽 2 사진, 문화유산
- 141쪽 5 응원
- 142쪽 5 시각

학습곡

128~142쪽

- 128쪽 ① 독자
- 131쪽 ② 매체
- 132쪽 ③ 개요
- 135쪽 ④ 초고
- 136쪽 ① 독자
- 139쪽 ② 주제
- 142쪽 ① 주제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28~142쪽

- 131쪽 (1) 신주 (2) 사직
- 134쪽 (1) 유례 (2) 증축
- 142쪽 (1) 마스코트 (2) 슬로건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28~142쪽

- 128쪽 01 ⑤ 02 학교 신문 03 독자, 주제
- 129쪽 04 ④ 05 ④ 06 ④
- 130쪽 07 ⑤ 08 매체
- 131쪽 09 ① 10 주제
- 132쪽 11 ④ 12 ㉠을 '끝' 부분으로 옮긴다. 13 ⑤
- 133쪽 14 ④ 15 가치 16 ⑤
- 134쪽 17 ② 18 ②
- 135쪽 19 ⑤ 20 ③
- 136쪽 21 독자 22 ⑤ 23 ⑤
- 137쪽 24 ① 25 배경지식
- 138쪽 26 ③ 27 출처
- 139쪽 28 ④ 29 조직 (차원) 30 ②
- 140쪽 31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 32 ⑤
- 33 ⑤
- 141쪽 34 ④ 35 ②
- 142쪽 36 배경지식 37 ⑤

- 01 내가 쓴 글에 어색한 표현이 없는지는 글을 다 쓴 뒤 고쳐 쓰는 단계에서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 02 준서는 매달 발행되는 우리 학교 신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인쇄 매체인 학교 신문에 글을 실으려고 있다.
- 03 ㉠에서 준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예상 독자)이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이 무엇인지 점검하여,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글의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
- 04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알고 싶은 내용을 점검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05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가 글쓰이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는 점검 사항이 아니다. 자료 점검의 기준은 글쓴이 본인이 아니라 글의 목적·주제·독자·매체이다.
- 06 종묘가 조선 왕실의 사당 역할을 한 것은 준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 07 ㉡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준서가 판단한 자료이다.
- 08 ㉠에서 준서는 '동영상을 인쇄 매체에 실을 수는 없으니까'라고 하며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 09 ㉡에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사실은 제시되어 있으나, 종묘의 창건 시기(1395년)에 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묘가 창건된 시기는 ㉡에 제시되어 있다.
- 10 ㉡는 관람객의 수를 다룬 자료로, 글의 주제인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와 관련이 없어 준서는 글에 포함하지 않으려 한다.
- 11 제시된 개요에서 준서가 '끝' 부분에 새로운 사례를 추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12 ㉠은 학교 학생들에게 종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이는 독자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 당부에 해당하므로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끝'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주제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내용을 떠오르는 대로 자세히 적는 것은 글의 내용을 조직할 때가 아니라 글의 내용을 생성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 14 이 글에는 '조선 시대의 사당, 종묘'라는 글 전체의 제목은 나타나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드러내는 소제목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종묘는 ~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왕실 사당'으로 종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종묘는 건축물로서 어떤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 찬사를 받는 것일까?'와 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③ '종묘는 현재 정전과 영녕전, 공신각과 칠사당 ~ 여러 부속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중심 소재인 종묘를 구성하는 건물들을 설명하고 있다.

⑤ '태조 4년(1395)에 정전을, 세종 3년(1421)에 영녕전을 지었으나 ~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5 ㉠에서 준서가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의 평가를 인용한 것은 종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임을 드러내어 종묘가 지닌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16 ⑤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열하고 조직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으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이다.

오답 풀이 ① 준서는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 수 있도록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② 준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종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③, ④ 준서는 '신주'라는 단어가 어려워 그 옆에 뜻을 추가했다고 하였다.

17 준서는 '동서'와 '남북'을 '가로'와 '세로'로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며 ㉡와 같이 표현하였다. 즉 준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와 같이 수정하여 넣었음을 알 수 있다.

18 '끝' 부분(지금까지 건축물로서~)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종묘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19 ㉠에서 준서는 학생들이 종묘에 방문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글의 마지막에 넣고자 하였다. 따라서 종묘를 직접 보러 가 보고자 권유하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20 글을 쓸 때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출처를 생략해도 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21 고쳐쓰기는 쓴 글을 목적과 주제에 맞게 다듬어서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활동이다. 독자는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이므로 독자의 배경지식, 기대나 요구, 태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글을 고쳐 써야 한다.

22 <보기>에서 준서는 독자가 종묘를 관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궁금해할 것이라고 하며 독자의 기대나 요구를 분석하였다.

23 준서는 독자들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여러 나라에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은 독자 분석 결과와 거리가 멀다.

24 이 글에서 준서가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장을 삭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5 이 글에서 준서가 어려운 한자어를 풀어 쓰고, 종묘에 대한 배경지식을 돕는 지도를 첨부한 것은 독자인 학교 친구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한 고쳐쓰기로 볼 수 있다.

- 26 ㉠에서 준서는 독자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장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27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내용, 조직, 표현 차원에서 글을 검토하고 고쳐 쓴다. 이때 내용 측면에서 글에 글에 제시한 정보의 출처를 밝혔는지 점검해야 한다. 준서는 초고를 고쳐 쓰며 출처를 추가하여 쓰기 윤리를 지키고 글의 신뢰성을 높였다.
- 28 준서가 고쳐 쓴 글에서는 ㉠(독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중요 정전의 건축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중요 정전의 건축 방식의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29 <보기>에서는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점검한 뒤 연결어를 고쳐 쓰려 하고 있다. 이는 '조직' 차원에서 글을 고쳐 쓰려는 계획이다.
- 30 글의 전체적인 구조가 논리적인지는 표현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의 고쳐쓰기 점검 항목에 해당한다.
- 31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와 그 분야에서 관심 있는 대상을 정한 뒤, 글의 목적,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의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32 글쓰기 계획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해야 한다. 그런데 ㉡는 e스포츠의 역사라는 주제 외에 다른 스포츠의 역사까지 함께 다루고 있어 글의 주제가 분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3 2025 동계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의 건설 방법은 2025 동계 아시안 게임을 소개하는 글의 목적과 거리가 멀다.
- 34 '가운데 1'은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 '빈빈'·'니니'와 공식 엠블럼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한국 민속에서 호랑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다룬 ㉢는 단락의 중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 35 <보기>는 독자의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이므로, 응원하려는 의향을 반영해 함께 응원하자는 내용을 추가하는 ㉡가 가장 적절하다.
- 36 <보기>는 독자가 우리나라 선수단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언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고려한 독자 분석 요소는 배경지식이다.
- 37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했는지 점검하는 단계는 고쳐쓰기 단계가 아니라 계획하기 단계이다.

* 압축파일

144쪽

- ① 점검 ② 조정 ③ 매체 ④ 주제 ⑤ 개요 ⑥ 독자 ⑦ 기대

발전 활동

145~146쪽

- 146쪽 1 타인
2 분석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45~146쪽

- 145쪽 (1) 비문 (2) 퇴고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45~146쪽

- 145쪽 01 ⑤ 02 ③
146쪽 03 ④ 04 ②

- 01 ㉡에서 퇴고를 할 때 국어사전을 확인하며 부정확한 단어를 적절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에서 퇴고는 타인의 관점에 입각해 글을 객관적으로 다시 읽으며 시작된다고 하였다.
- ② ㉡에서 퇴고 시 필요하다면 뒤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뒤로 돌린다고 하였다.
- ③ ㉡에서 내용 차원의 퇴고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퇴고와 표현 차원의 퇴고 방법을 모두 설명하고 있다.
- ④ ㉠에서 퇴고는 '글쓰기의 일부'라고 하였으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품질을 검사하는 과정이 꼭 들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퇴고를 형식적인 추가 작업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이 글에서는 글의 구조와 표현, 단어 등을 점검하며 고쳐 써야 한다고 하였을 뿐, 글의 주제를 새롭게 설정하여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에서 '긴 문장은 짧게 바꾸고, 오타자와 비문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다.
- ② ㉢에서 '퇴고가 끝나면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 ④ ㉢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람에게 글을 보여 주고 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였다.
- ⑤ ㉡에서 '군더더기는 과감하게 덜어 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라고 하였다.
- 03 <보기>의 '태환'은 자신의 글을 친구에게 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는 타인의 시선을 빌려 글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다.
- 04 글을 고쳐 쓸 때는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로 바꾸어 써야 한다(ㄱ). 또한 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되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ㄴ).

- 01 ④ 02 [D], 준서가 쓰려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03 ③ 04 ④ 05 ④ 06 ㉠: 유례, ㉡: 그렇다면

- 01 (가)를 통해 볼 때 준서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글을 쓰고자 하였으며, 종묘의 제례 절차를 중심으로 글을 쓰려 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2 **서술형** [D]는 주요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을 관람객 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설명하려는 글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 03 '가운데 2'(정전의 건축적 아름다움)는 종묘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다. '처음'은 글의 도입부로 종묘에 관한 기본 정보를 소개하는 부분이므로, '가운데 2'를 '처음'으로 옮기면 글의 흐름이 어긋난다.
- 04 (가)에서는 프랭크 게리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으나, (다)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05 <보기>는 독자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로, 독자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짚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별한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④가 적절하다.
- 06 **서술형** ㉠ '유례'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을 뜻하므로 문맥에 맞지 않아 '같거나 비슷한 예'를 뜻하는 '유례'로 고쳐야 한다. 또 (라)는 앞 문단에 이어 정전이 101미터의 긴 길이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므로, 역접 접속 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렇다면'으로 고쳐야 한다.

- 01 ⑤ 02 ④ 03 피동 표현은 전달하려는 바를 신중하게 드러내어 내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04 ⑤
05 ④ 06 ④ 07 ④ 08 ⑤ 09 ④ 10 ② 11 ⑤

- 01 지우가 인용한 말에는 '윤재가'라는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만, 윤재가 인용한 말에는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말 모두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동생이 삼촌에게 안겼다.'가 된다. '동생이 삼촌을 안았다.'는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하는 능동 표현이다.
- 03 **서술형** ㉠에는 능동 표현, ㉡에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과 같이 방송 보도에서 능동 표현을 쓰면 시청자가 뉴스 내용을 기자의 주관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과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04 [C]는 간접 인용 표현으로, 간접 인용 표현은 말하는 이의 어조가 직접 드러나지 않으므로, 말하는 이의 어조를 실감나게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 05 ㉠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행위의 주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라산이 겪는 환경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 06 ㉡은 간접 인용이 사용된 부분이며, 피동 표현을 활용해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행위의 주체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원의 말에서 행위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강조하여 인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은 직원의 말을 큰따옴표 없이 재구성하여 간접 인용하였다.
② 직원은 특정 시기에 한라산에 탐방객이 많이 와 하루에 컵라면 국물이 120리터가 버려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은 이러한 맥락 없이 하루에 120리터가 버려진다고만 하였으므로 직원의 말 중 일부만 선택하여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직원은 60리터짜리 통이 하루에 2개 정도 찬다고 하였는데, ㉡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0리터라고 합쳐 표현하였다.
⑤ 직원은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주체가 한라산 탐방객임을 밝히고 있으나, ㉡에 인용할 때는 주체를 숨겨 한라산 탐방객을 탓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07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배제할 것인지는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점검·조정할 사항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생성할 때 점검·조정할 사항이다.
- 08 <보기>는 종묘를 비롯한 궁궐·왕릉의 관람객 수를 다룬 자료로, 이 글의 주제인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글에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 09 ㉡ '종묘에 방문할 것을 권유'는 독자의 실천을 이끌어 내는 당부에 해당하므로, '가운데'가 아닌 글을 마무리하는 '끝'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10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포함된 문단은 앞 문단에 이어 종묘 정전이 긴 길이를 갖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하지만'이 아니라 '그렇다면'과 같은 자연스러운 연결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11 <보기>는 독자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점, 즉 글 내용에 대한 독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고쳐 쓴 사례이다.

4 매체로 보는 세상



매체 환경에서 바르게 읽기

제재 「선택에 숨겨진 비밀, 너지 효과」

학습목

154~158쪽

155쪽 처음 소주제: 너지 효과

- ① 개입
- ② 파리

156쪽 가운데 1 소주제: 상업

- ① 자발적, 홍보
- ② 소제목

157쪽 가운데 2 소주제: 공익

- ① 건강
- ② 학생

158쪽 가운데 3 소주제: 의의

- ① 자유 의지
- ② 유인

끝 소주제: 당부

- ① 적응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54~158쪽

156쪽 (1) ○ (2) ×

158쪽 (1) 유인 (2) 과태료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54~158쪽

154쪽 01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 간접적 02 ③ 03 ④

155쪽 04 ③ 05 ⑤ 06 자발적 지불 전략

156쪽 07 ③ 08 ㉠, ㉢, ㉣

157쪽 09 ① 10 투표, 환경 11 ④

158쪽 12 ④ 13 ④

- 01 '너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뜻으로,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선택에 개입하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 02 마트는 가격이 저렴해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은 초콜릿, 사탕을 계산대 근처에 배치해 판매율을 높인다고 하였다.
- 03 ㉠(작은 파리 모양의 스티커)은 암스테르담 국제공항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가운데에 붙인 것으로, 이용자들이 중앙을 겨냥하고 싶은 흥미를 유발했다. 그 결과,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을 80%나 줄이는 효과를 냈다.

04 '가운데 1'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5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은 고객이 초기에 설정한 선호도와 이후 시청한 영화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영화를 추천한다. 따라서 고객의 영화 시청 기록만을 분석한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①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마케팅에 너지 효과를 도입한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② ①의 도입으로 플랫폼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③ 고객이 소비하는 영화의 60퍼센트 이상이 ①을 통해 추천받은 영화라는 점에서, 고객의 자연스러운 소비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①은 수백 개가 넘는 영화 중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하였다.

06 <보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뷔페식당의 사례로, 고객이 원하는 만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자발적 지불 전략'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07 ①은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활용한 소제목으로, 너지 효과를 통해 여러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글의 핵심 내용을 인상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이 소제목이 붙은 '가운데 2'에서는 너지 효과의 긍정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을 뿐, 한계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두 마리 토끼를 잡다'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다.

②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두 마리 토끼'는 문자 그대로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①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 소제목으로, 글의 중심 내용을 압축적이고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08 이 글에서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의 효과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혼잡도가 낮아져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 기기들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며(㉢), 시민들의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을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09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투표 쓰레기통 아이디어를 낸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은 글에서 다루고 있는 투표 쓰레기통에 담긴 너지 효과에 관한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10 투표 쓰레기통은 사람들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는 너지 효과가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12 글쓴이가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돕는다는 점을 너지 효과의 의의로 제시한 부분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13 '자유 의지 침해'는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글쓴이는 이에 대해 너지 효과가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활동

160~165쪽

- 160쪽 1 개념
161쪽 2 문자, 그래프, 요약
162쪽 3 있다
163쪽 4 쓰레기, 공신력
164쪽 5 요약
165쪽 5 독려, 긍정, 열량

학습곡

160~165쪽

- 161쪽 ① 이미지
② 흥미
164쪽 ③ 해석, 최근
165쪽 ④ 효과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60~165쪽

- 160쪽 01 ③ 02 ④ 03 복합, 단일
161쪽 04 ④ 05 ㄱ, ㄴ 06 ①
162쪽 07 ④ 08 ⑤
163쪽 09 ③ 10 ④ 11 사진의 출처 및 제작 관련 정보(제작 시기, 제작 기관, 제작자 등)를 밝힌다.
164쪽 12 ③ 13 ③
165쪽 14 ② 15 의도 16 ④

- 01 [A]에서 글쓴이는 청소년들에게 너지 효과의 개념과 너지 효과가 적용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글을 기고했다고 하였다.
- 02 청소년 신문사 누리집은 예상 독자인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ㄴ). 또한 누리집은 문자뿐 아니라 사진, 그래프, 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어 복합양식의 자료를 실기에 적합한 매체이다(ㄹ).

오답 풀이 ㄱ. 청소년 신문사 누리집은 공식 언론 매체이므로, 검증 없이 자유롭게 글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매체를 선택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ㄷ. 누리집의 자료라 하더라도 자료의 출처는 명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 03 ㉞는 두 가지 이상의 표현 양식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며, ㉞는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만 이루어진 단일양식 자료이다.

- 04 ㉞와 ㉞는 모두 투표 쓰레기통의 모양과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표현 양식으로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문자와 함께 동영상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㉞이고, ㉞는 문자라는 단일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05 ㄱ과 ㄴ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표현 양식이 결합된 복합양식 자료이다. 하지만 ㄷ은 문자라는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만 제작된 단일양식 자료이다.

- 06 독자의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쌍방향 매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효과이다. 복합양식 자료는 사진이 실린 신문이나 책처럼 지면을 통해서도 구현되므로, 즉각적인 독자의 반응 확인은 복합양식으로 구성된 글 자체의 효과로 볼 수 없다.

- 07 ㉞은 글에서 소개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므로 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아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사진의 출처는 신뢰성 평가의 기준이지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② 사진을 찍은 각도의 다양성은 타당성 평가와 관련이 없다.

③ 사진은 너지 효과의 사례를 보여 주므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⑤ 사진의 크기는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아니다.

- 08 ㉞의 그래프는 특정 플랫폼의 구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글은 그래프에 담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09 동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투표 쓰레기통'이므로, 경기도 이천시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0 영상의 분량은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량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 11 이 글에서 <보기>의 사진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 및 제작 관련 정보를 밝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12 파리 스티커가 붙은 소변기 사진은 199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의 사례로, 너지 효과가 적용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다.

- 13 복합양식 자료는 주장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주장을 감추어 전달하는 것은 복합양식 자료의 효과와 무관하다.

- 14 이 글에서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개입 방식이며, 너지 효과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는 표현 양식이 대상을 설명하기에 효과적인지, 제작자의 의도나 목적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16 <보기>와 같이 실패 사례와 유의점을 함께 제시하면 너지 효과의 성공과 실패 양면을 균형 있게 다루므로, 독자는 너지 효과를 한쪽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압축 파일

167쪽

- ① 특징 ② 상업 ③ 간접 ④ 공익적 ⑤ 출처 ⑥ 목적

발전 활동

168~169쪽

- 168쪽 1 효과
2 중심
169쪽 3 인터뷰
4 시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68~169쪽

- 168쪽 01 ④ 02 ⑤
169쪽 03 ㄱ, ㄴ, ㄹ 04 ⑤ 05 ⑤

- 01 이 영상은 문자, 그림, 소리 등 여러 표현 양식이 결합된 복합 양식 자료로(ㄱ)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ㄷ) 달리기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ㄴ).
- 오답 풀이** ㄹ. 이 영상은 달리기의 방법이 아닌 달리기의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 02 <보기>에 제시된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은 영상 자료의 주제인 '달리기의 효과와 장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시청률은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② 인터뷰 대상자가 '전문가'이므로 공신력이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신력의 정도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③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④ <보기>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03 자료의 신뢰성은 제작 시기(비교적 최근인지), 출처의 명확성, 제작자나 제작 기관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배경 음악의 적절성은 신뢰성과 무관한 기준이다.

- 04 이 영상은 달리기의 긍정적 효과와 장점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이다. ㉠~㉣은 모두 달리기의 효과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달리기의 부작용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 05 실제 달리기를 꾸준히 해 온 사람의 경험담을 인터뷰로 추가하면, 달리기의 효과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 내용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뷰가 추가되면 영상의 분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② 인터뷰는 달리기의 효과를 전달하는 자료이지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가 아니다.

③ 영상은 달리기의 효과를 소개하는 자료이므로 단점을 소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인터뷰는 일반인의 경험담이므로 전문 지식을 제시하는 효과로 보기 어렵다.

→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70~172쪽

- 01 ④ 02 ② 03 ① 04 ② 05 ④ 06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는 피아노 소리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 07 ④ 08 ④ 09 ③

- 01 이 글에서는 너지 효과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사실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설명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실감 나게 표현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너지 효과'라는 중심 소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설명 대상인 너지 효과가 마케팅에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60퍼센트'와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글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⑤ (다)에서 문자와 함께 그래프를 제시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2 (나)에 따르면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지시나 명령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은 구독자 수 증가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보여 주고 있기에 표현 양식의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현민). 또한 '매거진 환경'이라는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민).

오답풀이 동주: 이 글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너지 효과를 활용한 결과 '구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프는 이러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글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주: ㉠은 공신력 있는 잡지사에서 제작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04 ㉠의 사례는 이용자의 편의성, 에너지 절약, 시민 건강 증진 등 공익적 효과로 이어졌으나 시설의 수익 증가와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 ㉠과 ㉡ 모두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너지 효과의 사례이다.

㉢ ㉠은 뷔페식당의 매출 증가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활용 사례이고, ㉡은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공익적 활용 사례이다.

㉣ ㉠으로 인해 평균 이용료가 7.99유로에서 6.44유로로 낮아졌고, ㉡으로 인해 계단 이용률이 높아져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 ㉠은 고객에게 가격 결정권을 주어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냈고, ㉡은 계단을 이용할 때 소모되는 열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계단 이용을 유도하였다.

05 (나)에서는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과 같이 너지 효과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이 에너지 절약, 시민 건강 증진 등 여러 효과가 있음을 짚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소재목을 (나)의 첫머리에 붙일 경우 중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06 **서술형** ㉢은 너지 효과의 사례로 언급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글에서 다른 사례를 시각 자료로 직접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사진의 관련성이 높아 자료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07 이천시의 고등학생들은 사람들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표 쓰레기통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 쓰레기통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08 글쓴이는 이 글에서 너지 효과의 사례를 통해 긍정적 영향력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를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09 자료가 비교적 최근에 제작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며, 2019년에 제작된 자료이므로 영상이 최근에 제작되었다는 평가 결과 또한 적절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제작하였는지를 묻는 것은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며, 『조선일보』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평가 결과 또한 적절하다(㉡).

오답풀이 ㉢ 출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아니요'로 평가하여 결과가 부적절하다.

㉣ '재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동영상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현실을 재현하는 매체 자료 분석하기

활동

173~184쪽

- 175쪽 **2** 자외선, 기능
- 177쪽 **2** 소개, 선택
- 178쪽 **3** 친환경
- 179쪽 **3** 긍정적, 잔여물
- 180쪽 **1** 인구
- 181쪽 **1** 남자
- 182쪽 **2** 뉴스, 고정 관념
- 183쪽 **2** 노인
- 184쪽 **4** 개선
- 5** 긍정적

학습목

173~184쪽

- 174쪽 **1** 현실
- 175쪽 **2** 관점
- 179쪽 **1** 배제
- 182쪽 **1** 사회상
- 2** 비판
- 184쪽 **1** 제작자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73~184쪽

- 180쪽 (1) 사회상 (2) 고정 관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73~184쪽

- 173쪽 **01** ④ **02** ②
- 174쪽 **03** ⑤ **04** ③
- 175쪽 **05** ③ **06** 자외선, 선크림 **07** ③
- 176쪽 **08** ④ **09** ②
- 177쪽 **10** ③ **11** ②
- 178쪽 **12** ② **13** ④
- 179쪽 **14** ⑤ **15** ② **16** ②
- 180쪽 **17** ② **18** ①
- 181쪽 **19** ⑤ **20** ①
- 182쪽 **21** ③ **22** 남성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한다. **23** ④
- 183쪽 **24** ⑤ **25** ⑤
- 184쪽 **26** ② **27** ③

- 01 ㉠은 카페의 전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은 것이 아니라, 창밖의 푸른 숲과 한적한 자리 등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부 모습을 선택하여 담은 것이다. 이는 매체 자료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장면을 선택·강조하여 재현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가상의 배경을 합성'하거나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부정적으로 부각된 모습'이 아니라, 지수가 카페에 방문해 직접 확인한 객관적인 현실이다.

③ ㉠은 카페의 한적하고 여유로운 일부만 선택하여 보여 주었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르게 느껴질 뿐, 다른 카페를 찍은 것은 아니다.

⑤ ㉠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분주한 분위기가, ㉡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어 두 자료가 전달하는 분위기는 서로 상반된다.

- 02 지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카페 사진을 보고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실제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이는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만을 선택해서 보여 주는 '재현'의 결과임을 알게 한다.

오답 풀이 ①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③ 조회 수가 많다고 해서 매체 자료가 더 사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④ 같은 대상이라도 제작자에 따라 선택된 모습이 다르므로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난다.

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게시물은 게시자 본인만 수정할 수 있다.

- 03 ⑤는 선생님이 불러 주신 문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행위로,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전달이다. 따라서 매체를 통해 현실을 선택·강조하여 다시 보여 주는 '재현'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 04 전문가가 만든 매체 자료라도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의 일부만 선택하여 재현하므로 제작자의 전문성이 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두 사진 모두 작가의 주관적 선택이 개입된 결과물이다.

② 두 작가는 결혼식 전체가 아닌 일부 장면만을 골라 담았다.

④ 신랑·신부를 강조할 때에는 하객이, 하객을 강조할 때에는 신랑·신부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⑤ 사진작가 A와 B의 결과물이 서로 다른 까닭은 각자의 의도와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 05 이 광고는 문구, 제품 이미지 등을 통해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후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당당하게!'라는 문구를 통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 주는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② 광고의 중심부에 선크림의 이미지를 크게 넣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④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자외선 완벽 차단'과 같은 해시태그를 통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제품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선크림이 만들어 준 그늘에서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품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06 이 광고는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당당하게!'와 같은 문구, 선크림이 만들어 준 그늘에서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통해 여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면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해 주는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07 이 광고에 사용된 문구와 이미지, 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광고에는 선크림의 기능을 홍보하여 선크림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민재는 극적인 느낌을 위해 두 주인공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은 빼고, 'O'의 주인공이 장원 상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09 지유는 영상 홍보물의 끝부분에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인물의 운명, 사생 대회의 장원에 얽힌 비밀'이라는 문구를 넣어 1학년 학생들이 소설 내용을 궁금해하도록 호기심을 유발하자고 제안하였다(ㄱ, ㄴ).

오답 풀이 지유는 영상 홍보물의 끝부분에 소설의 주제를 직접 드러내지 말자고 했으며(ㄷ), 윤아는 이미지 없이 문구만 넣자고 제안하였다(ㄹ).

- 10 이 홍보물에는 'O'의 주인공이 강당에서 장원 작품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두 주인공이 함께 그림을 감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 11 이 홍보물에서는 '농부의 아들/부잣집 고명팔'과 같이 두 등장 인물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구를 대비하여 두 인물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12 이 홍보물에서는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배제하였으며, 영상을 보는 1학년 학생들이 문구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이미지를 배제하였다.

- 13 처리기가 하수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 준다고 이야기한 것은 [A]로, [B]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 14 이 광고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음식물 처리기'라는 문구와 웃고 있는 지구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친환경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15 이 광고는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a)과 잔여물 처리에 따른 환경 문제(d)를 배제하였다. b는 친환경성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므로 광고에 포함되어 있다.

- 16 이 광고와 같은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요소가 선택·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17 '돌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를 보았을 때, 당시 출생아 수가 많은 편이었기에 이와 같은 홍보물이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 18 1950년대 초는 전쟁으로 인구가 감소한 시기로, 정부는 자녀 출산을 적극 권장하였다.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는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한 문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③ 1980년대의 출산 억제 표어이다.

④ 1980년대의 남아 선호 사상 타파를 위한 표어이다.

⑤ 1970년대의 출산 억제 표어이다.

19 당시 우리 사회에는 강력한 남아 선호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 아들을 낳기 위해 자녀를 계속 출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홍보물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남자아이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여자아이의 모습만을 담았다.

20 이 광고는 저출생 위기를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광고이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주장하는 광고가 아니다. 제시된 이미지는 한국의 인구 감소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21 ㉡와 ㉣는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이 아니라 청소년의 비흡연을 권장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다.

22 [A]에서는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과 여성이 출근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직장 일은 남성이,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이 담당한다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자 한다.

23 [B]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주로 젊은 세대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있다. 이는 노년층도 능동적인 문화 향유자임을 알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은 '○○의 친구 ○○'라는 문구와 '우리'라는 글씨를 강조하고, 농구를 즐기고 매운 음식도 잘 먹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밝은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이주 배경 청소년도 우리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진로 선택과 관련된 광고가 아니다.

② ㉠은 이주 배경 청소년의 어려움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광고이다.

③ 출신 국가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은 ㉠에 담겨 있지 않다.

④ ㉠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광고이다.

25 ㉠은 '우리'를 강조하며 이주 배경 청소년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려 내고 있다. 여기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담으면 이들이 일방적인 도움의 대상으로 비칠 수 있어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수 있다.

26 ②는 오히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므로 <보기>의 의도와 맞지 않다.

27 매체 자료에는 당대의 사회상이 반영되므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분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 입축파일

186쪽

- ① 재현 ② 관점 ③ 배제 ④ 사회상 ⑤ 비판

발전 활동

187~188쪽

187쪽 1 포스터

2 일회용품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87~188쪽

187쪽 01 ③ 02 ⑤

188쪽 03 ② 04 ②

01 포스터는 간단한 문구와 함께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매체이다. 따라서 ㉡과 같이 작은 글씨로 촘촘히 적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은 매체의 특성에 맞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계획이다.

02 ⑤는 건강 관리에 관한 문구로, <보기>의 주제인 지구 온난화 실천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A]는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포스터로, 후원사 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남', '돈'의 색을 다르게 하여 시선을 끌고 있다.

③ "남의 돈, 훔치실 겁니까?"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독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저작권 침해자를 도둑 이미지로 표현하여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⑤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퍼뜨리는 행위'라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문구에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04 <보기>는 회사원이라는 특정 집단을 남성으로만 표현한 것이 고정 관념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89~190쪽

01 ④ 02 독서의 날을 맞아 1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기 위

해서이다. 03 ② 04 ④ 05 ① 06 ④ 07 ③

01 <보기>는 같은 카페라도 사진을 찍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매체 자료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재현함을 보여 준다.

02 **서술형** 이 대화에서 학생들은 독서의 날을 맞아 1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배울 소설이 담긴 책을 영상 홍보물로 소개하자고 하였다.

03 두 인물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이미지는 영상 홍보물 처음 부분의 등장인물 소개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04 이 광고는 제품의 장점만 부각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과 같은 단점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장단점을 모두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매체 자료에 담긴 이미지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 사회상, 고정 관념 등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인 정보로 간주하여 받아들이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예전 광고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최근 광고는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시대에 따라 매체 자료의 표현이 달라짐을 보여 주므로, 매체 자료가 사회상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예전 광고는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선택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모습은 배제한 반면, 최근 광고는 그 반대이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선택과 배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

④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⑤ <보기>에서 예전 광고는 '어머니=가사 전담'이라는 고정 관념을 반영했지만, 최근 광고는 이러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매체 자료가 고정 관념을 반영하기도, 깨뜨리기도 함을 알 수 있다.

06 <보기>의 홍보물에 등장하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여성의 권익이 신장된 것과 연결 짓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둘만 낳아'라는 문구는 자녀의 수를 둘로 권장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②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가 홍보물에 제시된 것은 당시에 셋 이상의 자녀를 낳는 가정이 매우 많았음을 보여 준다. 이는 당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물이 제작되었음을 알려 준다.

③, ⑤ '딸 아들 구별 말고'라는 문구가 제시된 것, 그림 속 아이들이 모두 여자아이로 제시된 것은 당시에 딸과 아들을 구별하는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즉 당시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고, 이를 깨뜨리려는 의도가 홍보물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제시된 매체 자료에서는 남성이 아이를 안고 육아를 하는 모습과 여성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매체 자료는 남성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과 육아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고정 관념과 반대로 남성도 육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01 (다)에서 계단 이용률이 높아지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전기 사용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02 이 글에서 너지 효과와 다른 효과를 비교하여 너지 효과의 장점을 부각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춘천시청 내 피아노 계단의 사진을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사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② (라)에서 '~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와 같이 질문의 형식으로 독자에게 너지 효과의 창의적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④ (나)에서 그래프를 제시해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방법' 등의 소재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3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없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적인 처벌을 통한 강제적 방식이므로 너지 효과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식당 고객에게 잔반을 줄이라고 명령하는 대신 밥그릇 크기를 줄여 잔반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였으므로 너지 효과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저렴한 간식과 같이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계산대 근처에 배치하여 판매율을 높이는 것은 너지 효과의 대표적 사례이다.

③ '소변기를 깨끗하게 이용하세요.'라는 명령적 표현 대신 소변기에 파리 스티커를 붙여 소변기 밖으로 나가는 소변의 양을 줄인 것은 간접적 개입 방식이므로 너지 효과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급식실 바닥에 발자국 모양의 그림을 그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발자국 모양에 맞춰 줄을 서도록 유도하였으므로 너지 효과의 사례로 적절하다.

04 (나)에 제시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 그래프는 출처가 분명히 밝혀져 있어 내용의 신뢰도가 높다(진위). 또한 이 그래프는 구독자 수가 점점 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에서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글이 그래프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어 타당성이 높다(혜인).

오답 풀이 현자: (다)에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는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춘천시청 내 피아노 계단 사진은 글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만: 춘천시청 내 피아노 계단 사진은 공간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진의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05 **서술형** 글쓴이는 (가)에서 너지 효과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고, (나)~(다)에서 너지 효과가 우리 사회에 적용된 사례를 제시한 뒤 (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너지 효과를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91~193쪽

-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5 너지 효과를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06 ⑤ 07 ③ 08 시스템 유지를 위한 에너지 소비가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잔여물의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09 ③ 10 ④ 11 ④

06 이 광고의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당당하게!'라는 문구는 뜨거운 태양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선크림을 더 많이 판매하려는 제작자의 의도를 보여 준다.

07 전문가 1은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고 하수 시스템 부담을 덜어 친환경적이라는 환경적 효과를 강조한다. 반면 전문가 2는 시스템 유지에 드는 에너지 소비와 잔여물 처리 문제 등 환경적 문제를 지적한다. 따라서 두 전문가는 처리기의 환경적 측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오답풀이 ① 전문가 1은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장점을, 전문가 2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단점을 강조하므로 입장이 뒤바뀐 진술이다.

② 전문가 2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한계를 지적하므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두 전문가 모두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작동 원리(미생물 분해)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지 않다.

⑤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의 잔여물 처리 방식을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전문가 2뿐이다.

08 **서술형** (가)에서 전문가 2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가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잔여물의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고 있다. 하지만 (나)의 광고에서는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은 배제하였다.

09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되므로, 그 안에 담긴 정보가 검증을 거친 객관적 사실로만 구성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일부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

10 이 홍보물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 청소년에게 금연을 권장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연을 권장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여학생을 화장과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성별적 고정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이 홍보물에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형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이 홍보물은 청소년에게 금연을 권장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으며, 청소년의 일상적인 모습이 흡연을 미화하는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다.

③ 해시태그는 '#담배는_노담', '#나는_노담' 등으로 금연이라는 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다.

⑤ '노담(담배 안 피움)'이라는 문구와 여학생 그림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금연을 권유하려는 제작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11 ㉔(문구와 이미지를 배치하여 포스터 만들기)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관점을 뒷받침하는 문구와 이미지를 배치해야 한다. 자신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의도와 관점을 반영한 포스터를 만드는 계획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나의 즐거운 국어생활



똑똑하게 글 읽기

간단+복습문제

03쪽

- 쪽지 시험 01 예측 02 메모 03 평가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이주하였다 02 불문하고 03 할당된 04 ㉢
05 ㉤ 06 ㉥ 07 ㉦ 08 이목 09 원정 10 아마추어리즘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4~05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1 (나)는 준서가 글을 읽기 전에 한 점검·조정 활동으로, 준서는 책의 차례에 제시된 소제목에 바탕으로 내용을 예측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고 있다. 자신이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글을 읽는 중에 할 수 있는 점검·조정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글 선정하기’, (나)는 ‘읽기 전 점검하고 조정하기’에 해당하므로 모두 글을 읽는 과정과 관련된 활동이다.

② (가)에서 준서네 모듬은 책 제목 아래에 ‘전 세계 약 30억 축구족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보고서’라고 쓰여 있는 책과, 책 표지에 “월드컵은 어떻게 시작했나?”라고 쓰여 있는 책을 각각 살펴보고 읽을 글을 선정하고 있다.

③ (가)에서 준서네 모듬은 책 표지에 쓰여 있는 부제를 보고 책에 원하는 정보가 담겨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

④ (나)에서 준서는 “또 차례를 살펴보니 내가 찾고 있는 내용은 01, 02에 실려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먼저 읽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차례를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이 실린 부분을 찾고 있다.

02 모듬이 책을 읽으려는 이유는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를 알기 위해서이다. ‘축구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분석을 담은 책’은 모듬이 깊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하지 않은 책의 특성이므로, 관심·흥미를 기준으로 고려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03 차례(㉠)에 각 월드컵 대회의 경기 결과와 관련한 소제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책을 읽으면 각 월드컵 대회의 경기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있겠다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04 1982년에 월드컵 해외 중계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글의 내용을 확인한 것일 뿐,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한 활동이 아니다.

05 글쓴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8강에 오른 국가들의 대륙별 분포가 상당히 고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이 대회를 진짜 월드컵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06 <보기>에서는 읽기 과정에서 잘된 점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글을 읽은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읽은 후 활동에 해당한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06쪽

1단계 01 상황, 수준 02 글을 읽는 목적 확인하기

2단계 03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읽은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 읽기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3단계 04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을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본선 진출국, 처음 출전한 국가, 텔레비전 시청자 수가 모두 늘어났기 때문이다. 05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읽기 / 글쓴이가 제시한 판단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함께 떠올렸기 때문이다.

1단계

01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독서 상황과 독서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02 <보기>에서는 ‘나는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글을 읽는 거였지.’라고 하며 독서 목적을 확인하고, 글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 글을 읽는 목적을 계속 떠올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2단계

03 <보기>에서는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을 읽을 때 점검 및 조정하며 읽으면 글을 읽으려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3단계

04 (가)에서 본선 진출국과 첫 출전 국가가 늘어났고, 100억 명이 넘는 텔레비전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기에 1982년 월드컵을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른다고 하였다.

평가 목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세 가지 이유를 모두 포함하여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쓴 경우 [20점]
	✓ 두 가지 이유만 썼거나, 완결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5점]
	✓ 세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10점]

05 <보기>에서는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하므로 1982년 월드컵을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르기 어렵다.’라는 글쓴이의 판단을 주관적이라고 보고, 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

평가 목표	읽는 중 점검·조정하는 방법 알기
채점 기준	✓ 점검·조정 방법을 정확히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20점]
	✓ 점검·조정 방법의 명칭만 썼거나, 근거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0점]



간단+ 복습문제

08쪽

- 꼭지 시험** 01 화제 02 입체적 03 출처 04 독자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위험합니다 02 동의 03 수집 04 ㉡
 05 ㉠ 06 ㉢ 07 ㉡ 08 공신력 09 왜곡 10 영양소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9~10쪽

- 01 ① 02 ② 03 ⑤ 04 ③ 05 ④ 06 (다) / 필요
 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1 건의문은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글로, 주장과 이유가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공감을 얻기 위한 감성적 표현은 건의문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 02 [자료 1]은 채식주의자의 유형을 설명하는 자료로, 채식 급식이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는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료 1]은 학교 급식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채식을 설명할 때 일부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03 자료 수집 시에는 출처가 명확한지,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지, 글의 주제에 적합한지, 최근의 자료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자료보다 분량이 많은지는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04 (다)는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단이 청소년의 과체중·비만 위험을 높이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한 부분이다. 청소년의 체력 저하와 관련한 내용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 05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하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에,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에서 잔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음식의 맛과 다양성을 높여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맛과 다양성을 높인 다양한 채식 식단의 예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건의문의 ‘처음’ 부분으로, 여기에는 인사말과 자신에 대한 소개, 글을 쓰게 된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채식을 즐기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는 것은 <보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 ②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잔반이 늘어나는 문제는 관련이 없으므로 <보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 ③, ⑤ 청소년 건강 문제와 잔반이 늘어나는 문제는 관련이 없으므로 <보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 06 **서술형** <보기>는 동물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이 자료는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단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필요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11쪽

- 1단계** 01 복합양식 02 신뢰성
2단계 03 영양 선생님께 채식 식단을 제공해 주시기를 건의한다.
3단계 04 <보기>에는 육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다. (나)의 ‘문제의 심각성’ 부분에 활용하여 채식 급식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05 탄소의 순환 과정은 자유가 쓰려는 글의 주제인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할 수 없다.

1단계

- 01 <보기>는 복합양식 자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 02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인지, 전문가가 제작한 자료인지, 출처가 명확한지, 최근의 자료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단계

- 03 (가)의 쓰기 계획과 (나)의 개요를 통해 볼 때 자유는 영양 선생님께 채식 식단 제공을 건의하기 위해 글을 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

- 04 <보기>는 식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를 (나)의 ‘가운데’ 중 ‘문제의 심각성’ 부분에 활용하면 육식 위주의 식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채식 급식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 목표	자료 선별하여 내용 조직하기
채점 기준	✓ 자료의 내용과 활용 방안을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자료의 내용이나 활용 방안 중 어느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05 (가)의 쓰기 계획에 따르면 자유가 쓰려는 글의 주제는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 주세요.’이다. <보기>의 탄소 순환 과정은 이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글에 활용할 근거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평가 목표	자료 선별하여 내용 조직하기
채점 기준	✓ 자료가 주제와 관련 없음을 밝혀 쓴 경우 [20점] ✓ 자료가 주제와 관련 없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2~14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④
08 ④ 09 ③

01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월드컵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그 시작은 어땠을까?’,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의 내로라할 축구 선수들이 한데 모여 팬들의 함성을 들으며 축구를 하게 됐을까?’에서 의문문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나)에서 질 리메가 월드컵을 기획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④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 1982년 스페인 월드컵 →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흐름에 따라 월드컵의 발전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마)에서 진정한 의미의 월드컵에 관한 견해를 사실에 근거해 제시하고 있다.

02 8강 진출국의 대륙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난 대회는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 아니라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은 오히려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해 진정한 월드컵으로 부르기 어렵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질 리메는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구 대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② 중앙 아벨란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대륙의 월드컵 출전권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고, 1982년 월드컵에서 이 지역들의 월드컵 출전권을 늘렸다.

④ 2002년 월드컵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대륙의 국가들이 8강에 진출하였다.

⑤ 글쓴이는 1982년 월드컵이 대륙별 경기력 편차가 심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진정한 월드컵의 시작은 2002년 월드컵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03 ⑥(차례의 소제목으로 내용 예측하기)는 읽기 전,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기), ㉡(글 내용과 자신의 생각 비교하며 읽기), ㉢(중요한 표현에 밑줄 긋기)는 읽는 중, ㉣(자신의 읽기 활동 평가하기)는 읽은 후에 수행하는 점검·조정 활동이다.

04 (다)에서 ‘당시 우루과이는 1924년과 1928년 올림픽에서 축구 종목 금메달을 차지했고, 1930년에는 세계 박람회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월드컵 개최에 적합했다.’라고 하였다.

05 <보기>는 월드컵 본선 진출국 선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로, 이 글에 직접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는 글을 읽은 후 궁금해진 내용을 추가로 찾아본 활동이므로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③ <보기>는 글을 읽은 후 찾아본 자료라고 하였으므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보기>의 자료와 생략되거나 압축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⑤ <보기>의 자료는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06 이 글은 환경 오염과 청소년 건강 문제에 관한 실제 자료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국가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형식과 글에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것을 고려할 때, 이 글은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글임을 알 수 있다.

② ○○대학교 하△△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육류 위주의 식단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이 글은 학교 영양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 주기를 건의하는 글이다.

⑤ 글에서는 육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육식 대신 채식을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07 ㉠은 육식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은 국내 청소년 1인당 동물·식물 단백질 섭취량을 비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식단이 점차 육류 위주의 식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은 동물 단백질 섭취량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위험을 보여 줌으로써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청소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따라서 ㉠~㉢은 모두 채식 식단 제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채식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는 내용은 ㉠~㉢에 나타나지 않는다.

08 이 글의 ‘가운데’ 부분에서 글쓴이는 구체적 수치와 전문가의 연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겪은 체험을 드러내어 공감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건의문의 형식에 따라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② ‘처음’ 부분에 ‘저는 2학년 박자유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최근 제가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영양 선생님께 제안드릴 것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며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③ ‘가운데’ 부분에서 인터넷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에서 발췌한 그래프 등 복합양식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근거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⑤ ‘끝’ 부분에서 ‘급식으로 채식 식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육식이 온실가스를 배출해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채식이 환경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고, 육류 위주 식단이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채식 식단 도입의 기대 효과로는 ‘환경 보호’와 ‘건강한 식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 서로를 잇는 이해와 소통



세상을 담은 문학

간단+복습문제

16쪽

- 꼭지 시험** 01 3인칭 02 역순행적 03 방언 04 ㉠
 05 ㉡ 06 ㉢ 07 ㉣ 08 ㉤, ㉥ 09 ㉦ 10 ㉧, ㉨
어휘 시험 01 정오 02 성한 03 전사 04 ㉠ 05 ㉢
 06 ㉤ 07 ㉣ 08 통지 09 기색 10 상이군인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7~1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고등어

- 01 이 글은 ‘용머리재 → 기차역 대합실 → 주막’이라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기차역에서 만도가 한 쪽 다리를 잃은 채 서 있는 진수의 모습에 “에라이, 이놈아!”라고 소리친 것은 진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들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표출된 것이다. 진수 또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아버지를 뒤따른다. 이어 주막에서 만도가 진수에게 먹일 국수를 곱빼기로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서도 아들을 향한 부정(父情)이 드러나므로, 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이기 무슨 꼴이고, 이기.” “여기 좋심디.” 등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②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이 울렁거렸다.’, ‘바짝 긴장되었다.’,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등 서술자가 인물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④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이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에라이 이놈아!”, ‘고등어를 든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등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 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에서 한 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02 만도는 한 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을 보고 “에라이, 이놈아!”라고 소리치며 충격과 분노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지 않고 “가자, 어서!”라고 말하며 성큼성큼 앞장서 걸어갔다.

오답 풀이 ① (나)의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 가는 바람결에 한 쪽 바짓가랑이가 펄럭이는 것이 아닌가.’에서 진수가 한 쪽 다리를 잃은 채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웠을 리는 없을 건데…….’라고 생

각하는 부분에서 진수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만도에게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가지는 않았다.’에서 만도가 기차에서 내리는 상이군인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흠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에서 만도가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역 대합실에서 진수를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 03 (라)에서 만도가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것은 한 쪽 다리를 잃은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은 진수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진수의 처지에 대한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 등의 감정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생각할수록 어젯바람이 날 일이다.’와 ‘어느 때 같으면 ~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쳐도 만 것이다.’에서 만도가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에 들떠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에서 만도가 진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이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만도는 눈앞이 노오래지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에서 만도가 상이군인이 된 진수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술을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킨 만도가 진수에게 국수를 시켜 주는 모습을 통해 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 ‘상이군인’은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을 뜻하는 말이다. 이를 통해 한국 전쟁 직후, 전쟁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온 군인들이 많았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

- 05 이 작품의 제목인 ‘수난시대’는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 한 쪽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와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 쪽 다리를 잃은 아들 진수를 가리키는 말로,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겪은 가족사적 수난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을 상징한다.

- 06 만도가 진수에게 모질게 말한 이유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현실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 07 ㉠ ‘야물게’는 ‘단단하고 굳세게’를 뜻한다. ‘단단하거나 질기지 않아 부드럽거나 약하게.’의 뜻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리게’이다.

- 08 진수는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 다리가 없어 노니 첫째 걸어 땀기기에 불편해서 푹 죽겠심더.”라며 다리를 잃은 자신의 처지를 탄탄하고 있다. 다리를 잃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팔을 잃은 편이 나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09 ㉠은 술에 취해 속상한 마음이 누그러진 만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10 **서술형** 진수는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불일을 볼 수 있도록 고등어를 들어 주었다. 따라서 ‘고등어’는 부자간의 화합과 협력을 의미하며 부자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소재이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0쪽

- 1단계** 01 외나무다리
2단계 02 만도와 진수 부자의 고난을 우리 민족의 수난으로 확대하여 보여 주고 있다.
3단계 03 만도는 한쪽 팔이 없는 몸으로 진수를 업고, 진수는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채 아버지의 목을 부둥켜안고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이와 같이 부자가 협력하여 시련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우리 민족의 수난과 이를 이겨 내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1단계

- 01 ‘외나무다리’는 한쪽 팔이 없는 만도와 한쪽 다리가 없는 진수 모두에게 건너기 어려운 장애물로, 두 사람이 함께 겪는 시련을 상징한다.

2단계

- 02 결말에서 시선이 인물에게서 자연물인 ‘용머리재’로 이동하면서, 만도와 진수 부자의 고난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의 수난으로 확대되어 제시되고 있다.

3단계

- 03 한쪽 팔을 잃은 만도가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를 업고, 진수는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채 외나무다리를 건넌다. 이는 부자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수난과 극복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평가 목표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 의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두 인물이 협력하는 방식을 밝혀 민족의 수난과 극복의 지를 서술한 경우 [25점]
	✓ 민족의 수난과 극복 의지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15점]
	✓ 두 인물이 협력하는 방식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10점]



진솔하게 표현하며 갈등 조정하기

간단 복습문제

22쪽

- 꼭지 시험** 01 차별 02 집중하기 03 자신 04 × 05 ×
 06 ○ 07 ㉠ 08 ㉡ 09 ㉢, ㉣ 10 ㉤, ㉥
어휘 시험 01 인정 02 신중 03 악화되고 04 ㉠ 05 ㉡
 06 ㉢ 07 ㉣ 08 합리화 09 체면 10 자존감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3~24쪽

- 01 ④ 02 ③ 03 엄마가 영훈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04 ③
 05 ⑤ 06 ② 07 ④ 08 ④ 09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하고 있다.

- 01 영훈과 엄마는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입장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오답 풀이 ① 엄마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영훈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③ 엄마는 영훈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쓸데없이 새 옷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을 뿐, 일반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⑤ 엄마가 영훈에게 불만을 표현하기는 했으나, 그의 행동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말하지 않았다.

- 02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새 옷을 사 주어서 엄마가 자리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서운해하며, 엄마가 자신과 나리를 차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엄마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영훈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⑥ 엄마는 영훈이 공부가 아닌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고 생각한다.

㉣ 영훈은 엄마가 나리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서운함을 느낀다.

㉤ 엄마는 시험을 앞둔 영훈이 쓸데없이 새 옷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 못마땅해한다.

- 03 **서술형** (나)에서 엄마는 우연히 영훈의 속마음을 알게 된 뒤에야 영훈의 처지와 감정을 헤아리게 된다. 만약 영훈이 자신의 속마음을 엄마에게 직접 진솔하게 표현했다면, 엄마는 더 빨리 영훈의 마음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 04 <보기>의 화자는 “막상 난 내가 도와 달라고 하니 싫은가 보다? 난 네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라고 말하며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05 현수는 미래가 매번 약속 시간에 늦어 화가 났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고, 미래는 현수의 감정을 알지 못한 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수는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여 미래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06 ㄴ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발화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일이 잘못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③ ㄷ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④ ㄹ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 상대를 비교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

킬 수 있다.

⑤ ㄹ은 상대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07 세희는 혜지의 실력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혜지의 의견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희에게는 상대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의견을 경청하며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할 수 있다.

08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들어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

③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피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⑤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갈등을 분석할 때는 자신과 상대의 생각, 감정, 기대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09 **서술형** <보기>의 화자는 화가 난 친구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친구를 화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가 사소한 일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책임을 돌리는 발화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25쪽

1단계 01 기대 02 일반화

2단계 0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잘못을 돌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3단계 05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6 <보기>의 발화에 나타난 문제점은 상대방을 비교면서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과제인데 네가 맡은 부분을 해 오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어. 다음부터는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수행해 주었으면 좋겠어.”로 고칠 수 있다.

1단계

01 갈등은 상대와 생각, 감정, 기대 등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한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과 상대의 생각, 감정, 기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02 “넌 항상 나를 무시해.”에서 상대의 태도를 일반화하고 “내 말을 들을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에서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태도를 일반화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2단계

03 <보기>의 화자는 일이 발생한 원인이 모두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에게 잘못을 돌리는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04 <보기>의 화자는 친구가 매번 약속 시간에 늦는 상황에 대해 화가 나고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지켜 달라고 하고 늦게 되면 미리 말해 달라고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3단계

05 <보기>의 화자는 친구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서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진솔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

평가 목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바탕으로 발화의 문제점 찾기
채점 기준	✓ 발화의 문제점 두 가지를 완결된 문장으로 쓴 경우 [20점] ✓ 발화의 문제점 두 가지를 썼으나 완결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5점] ✓ 발화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쓴 경우 [10점]

06 <보기>의 화자는 친구가 모든 과제에서 맡은 부분을 해 오지 않은 일을 비교면서 조롱하고 있다. 이를 바람직한 발화로 바꾸려면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표현은 경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평가 목표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채점 기준	✓ 발화의 문제점을 쓰고, 바람직한 발화로 바꾼 경우 [20점] ✓ 발화의 문제점만 서술한 경우 [10점] ✓ 바람직한 발화로 고치기만 한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26~29쪽

01 ④ 02 ① 03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당시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을 상징한다. 04 ③ 05 ③ 06 ⑤ 07 ⑤ 08 ⑤ 09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 10 ② 11 ⑤ 12 ③ 13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만도가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오는 진수를 마중 가는 현재와 만도가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게 된 상황을

회상하는 과거를 교차하며 사건이 전개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만도가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 드러날 뿐, 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 글은 부자의 비극과 부정(父情)을 진중하게 그리고 있을 뿐,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인 어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인물 간의 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서술자의 설명과 만도의 회상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제시되고 있다.

02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던지시 암시하는 서술 방식을 말한다. 만도가 불을 댕기는 차례가 된 것은 만도의 역할과 순서를 보여 주는 사실적 서술일 뿐, 뒤이어 만도에게 닥칠 비극적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기 어렵다.

03 **서술형** 만도와 진수가 각각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손실을 겪은 것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수난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작품 제목인 '수난이대'는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에 걸친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을 상징한다.

04 만도는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라며 진수를 격려하고, 진수를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등 현실을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② 만도는 자신과 아들이 처한 불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

④, ⑤ 진수는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라며 앞날을 걱정하는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05 (다)에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교훈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의 대화와 행동, 내면 독백을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만도와 진수의 행동과 심리가 모두 작품 밖의 서술자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② 진수가 만도에게 업히는 모습, 만도가 힘을 주어 일어나는 모습 등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만도와 진수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던 시선이 이 광경을 내려다보는 웅머리재로 전환되며 개인의 수난을 민족적 비극으로 확장하고 있다.

⑤ 만도의 속마음(진수 니 신세도 참 뚱이다. 뚱.)과 진수의 중얼거림("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았을 텐데…….")이 직접 제시되어 서로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6 만도(태평양 전쟁)와 진수(한국 전쟁)는 우리 민족이 겪은 두 전쟁의 상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만도와 진수의 모습에 우리 민족이 겪은 두 전쟁의 상처를 담아내고, 두 인물이 서로 의지하며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 우리 민족이 협력하여 수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07 ㉠에서 엄마는 영훈의 말을 떠올리며 영훈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로 결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새 양털 재킷을 사 준 것을 보고 엄마가 자신과 나리를 차별한다는 생각에 "왜 오나리만 사 줘!", "진짜 차별 완전 심해!"라며 서운함을 드러낸다.

② ㉠에서 영훈은 엄마가 나리에게만 새 옷을 사 준 것에 대해 차별한다고 호소하고 엄마는 시험과 공부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등 두 사람은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다.

③ ㉢에서 영훈은 나리에게 "나도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참다 참다 터진 거라고!"라며 그동안 담아 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④ ㉢에서 나리는 "조금 힘들었을 거 같기도 해."라며 영훈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를 한번 해 봐."라고 엄마와의 대화를 권유한다.

08 ㉠을 통해 영훈의 속마음을 알게 된 엄마는 ㉠에서 영훈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이로써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두 사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영훈이 부모님에게 차별받았다고 느끼며 '애물단지', '하찮은 손가락'으로 자신을 비하할 만큼 깊이 상처받았음이 나타난다. 이는 영훈이 화를 낸 근본적 이유에 해당한다.

② ㉠은 영훈이 엄마에게는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나리에게만 털어놓은 속마음에 해당한다.

③ ㉠에서 엄마는 "초조한 모양이야.", "자존감이 깎이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지."라며 영훈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이는 엄마가 영훈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의 "너희 오빠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나도 몰랐고……."에서 엄마가 그동안 영훈의 속마음을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09 **서술형** 영훈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엄마에게 진술하게 표현했다면, 엄마는 영훈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기대하는 바를 파악하여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보기>에 제시된 발화는 상대의 실수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로 양보하거나 의논할 가능성을 줄여 갈등의 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11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상대가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대화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12 글쓴이는 아버지의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 이냐?"라는 말을 통해, 잘못을 사과할 때 체면이나 지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함을 깨닫고 영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기로 결심한다.

13 **서술형** 아버지가 "제가 잘못된 건데요. 죄송합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자, 경비원도 마음을 풀고 함께 사과하며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었다.

3 세상과 주고받는 말과 글



상황에 맞게 문법 요소 활용하기

간단+복습문제

31쪽

쪽지 시험	01 능동	02 주체	03 '고'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윤리	09 왜곡하여	10 교육정책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2~33쪽

01 ㉢	02 ㉤	03 ㉠	04 앞산이 구름에 (의해) 덮였다.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 01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능동 표현의 주어는 '에게, 한테, 에 의해서' 등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의 부사어가 된다. 능동 표현의 주어가 피동 표현의 목적어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육되다'와 같이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②, 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④ '찍히다', '잡히다', '힐리다', '안기다'와 같이 능동사에 접사 '-이-, -하-, -리-, -기-'를 결합하거나 '만들어지다'와 같이 능동사에 '-아/어지다'를 결합하여 피동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 02 ㉠과 ㉡은 동일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동작이나 행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문장이 달리 표현된 것으로, 피동 표현에 해당하는 ㉠에서는 행위의 초점을 '도둑'에 두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능동 표현으로, '경찰'이 잡는 행위를 제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② ㉠에서 '잡았다'는 '경찰'이 잡는 동작을 제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사이다.

③ ㉡은 피동 표현으로, '도둑'이 주체인 '경찰'에 의해 잡는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④ ㉡에서 '잡혔다'는 '도둑'이 주체인 '경찰'에 의해 잡는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사이다.

- 03 '그린다'는 주체인 '아이'가 그리는 동작을 제함으로 함을 나타내는 능동사이므로 ㉠은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 04 **서술형** <보기>의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주어인 '구름이'는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인 '앞산'은 주어가 된다. 또한 서술어 '덮었다'는 접사 '-이-'가 결합하여 '덮였다'가 된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앞산이

구름에 (의해) 덮였다.'가 된다.

- 05 <보기>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능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와는 달리 식탁이 안 닦인 사실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 06 ㉠(전망되다)와 ㉡(보이다)의 대상은 '고랭지 배추'와 '당근' 자체가 아니라 각각의 '가격'이다. ㉠과 ㉡은 모두 피동 표현으로, 전달 내용을 신중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내용을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망됐습니다'는 명사 '전망'에 접사 '-되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고, '보입니다'는 능동사 '보다'에 접사 '-이-'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보기>는 농산물의 가격을 전망하는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③, ⑤ <보기>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전달하려는 내용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화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게 하여 시청자가 그 내용을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게 한다.

- 07 '연휴에는 도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유발된다.'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이 교통 체증이라는 상황 자체를 강조한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상황이며, 이중 피동 표현과 같은 잘못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생각되어진다'는 '되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그 편지는 삼촌이 보냈다고 생각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극복은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 표현인 '극복하다'가 자연스러운 말이다. 또한 '극복되어진다'는 '-되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 이어진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였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불려지다'는 '부르다'에 접사 '-리-'를 붙인 피동사 '불리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 의해 자신의 노래가 불리자 가수는 인기를 실감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찍혀지다'는 '찍다'에 접사 '-히-'를 붙인 피동사 '찍히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춤을 추는 모습이 찡뻐한 영상을 보니 열심히 연습한 보람을 느낀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08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인용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인용 표현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끌어 쓰는 것으로, 인용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나뉜다.

③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용 표현으로, 인용하는 부분에 큰따옴표를 넣어 표시하여 나타낸다.

④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내용만 끌어 쓰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어조를 반영하지 않고 인용하는 부분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한다.

- 09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인용하는 부분을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해야 하므로, '저'는 '자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③ 간접 인용 표현은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인용 표현이므로, 큰따옴표를 쓰지 않고 인용할 부분 다음에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

④ 직접 인용 표현의 시간 표현인 '내일'은 화자가 현재 말하는 시점을 반영하여 '오늘'로 바뀌어야 한다.

⑤ 인용된 부분의 의문형 종결 표현이면서 높임 표현인 '-나요'는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느)냐'로 바뀌어야 한다.

10 ㉠, ㉡는 직접 인용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인용한다. 따라서 간접 인용 표현인 ㉢에 비해 더 정확한 표현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는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인용한 직접 인용 표현이다.

② ㉠과 ㉡는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담겨 있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③ ㉠과 ㉡는 모두 직접 인용 표현으로, 두 문장 모두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인용된 부분의 종결 표현이 변한다.

④ ㉢는 큰따옴표 없이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고'를 붙여 나타낸 간접 인용 표현으로,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보다 인용하는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11 인용 표현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 쓸 때에는 인용한 원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유리), 인용 부호 등을 적절히 사용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포함된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명영).

오답 풀이 기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도 인용하는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간접 인용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보현: 인용할 때는 원저자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해야 한다. 인용한 내용의 일부를 의도에 맞게 수정하면 원저자의 생각이나 의도가 훼손될 수 있다.

12 <보기>는 인터뷰 내용을 직접 인용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인터뷰 대상자인 최 씨의 소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현장성을 높이고 있다.

특집 서술형문제

34쪽

1단계 01 능동 표현, 피동 표현 02 간접 인용 표현

2단계 03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거센 폭풍우에 (의해) 끊겼다(끊어졌다).

04 ㉠에 비해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문장을 좀 더 간결하고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다.

3단계 05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효과가 있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06 인용할 때는 원저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인용하는 내용이 원문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단계

01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문장은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다르게 나뉜다.

02 인용 표현은 실현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용 표현이고,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 인용 표현이다.

2단계

03 <보기>의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보기>의 주어인 '거센 폭풍우가'를 피동 표현의 부사어로, 목적어인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피동 표현의 주어로 삼은 뒤, 서술어 '끊었다'에 접사 '-기-'를 결합해 '끊겼다'로 수정하거나 '-어지다'를 결합해 '끊어졌다'로 수정해야 한다.

04 ㉠은 직접 인용 표현, ㉡는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간접 인용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반영되지 않고 종결 어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을 좀 더 간결하고 매끄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3단계

05 <보기>는 한라산에 버려지는 겁라면 국물이 많아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다룬 글이다. 글쓴이는 '버려지는'과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겁라면 국물을 버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평가 목표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채점 기준	✓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를 포함하여, 밑줄 친 부분의 행위 주체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의도를 적절하게 밝혀 쓴 경우 [20점]
	✓ 밑줄 친 부분의 행위 주체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의도를 적절하게 밝혀 썼지만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와 관련지어 쓰지 못한 경우 [10점]
	✓ 피동 표현의 표현 효과만 쓴 경우 [5점]

06 <보기>에서 지호는 자신의 보고서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때 전문가의 이름과 같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했다. 이는 인용 윤리를 어긴 사례이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는 내용이 원문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평가 목표	인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지호의 잘못을 고려하여 인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를 두 가지 쓴 경우 [20점]
	✓ 지호의 잘못을 고려하여 인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를 한 가지 쓴 경우 [10점]
	✓ 인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를 한 가지 썼으나, 지호의 잘못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5점]



간단+ 복습문제

36쪽

- 꼭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사당 10 증축
어휘 시험 01 의례 02 매혹되고 03 등재되었다 04 ㉠
 05 ㉠ 06 ㉠ 07 ㉠ 08 전례 09 찬사 10 유일무이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7~38쪽

- 01 ㉠ 02 ㉠ 03 ㉠ 04 ㉠ 05 ㉠ 06 고쳐 써야 할
 부분은 ㉠이다. ㉠을 '유례'로 고쳐 써야 한다.

01 준서는 종묘에 대해 많이 들어 봐서 익숙하지만,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는 잘 모르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02 (가)에서 준서는 글의 주제를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고려 시대 왕릉을 찾은 시민과의 인터뷰 내용은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종묘의 건축적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은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의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가운데 2'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종묘 정전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종묘 정전의 길이가 길어진 이유를 다루는 '가운데 3'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세계적인 건축가의 종묘에 대한 찬사를 담은 내용은 '처음' 부분에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끄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건축물로서 종묘의 가치를 설명하는 '가운데 3'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

03 '끝'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므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종묘에 방문할 것을 권유'하는 '가운데 5'의 내용을 '끝' 부분으로 옮겨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가치 있는 건축물이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 글의 주제에서도 벗어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처음' 부분에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면, 뒤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조선 시대 사직단이 지닌 중요성'은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가운데 2'에서 종묘의 여러 건물 중 하나인 정전을 다룰 것이므로, 그 앞부분에서 종묘를 구성하는 건물의 종류를 미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이 글의 목적은 종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종묘의 아름다움에 관해 설명하기에 앞서 '가운데 4'의 '종묘가 건축된 과정'을 가

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가운데 1'의 위치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04 (가)에서 프랭크 게리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을 뿐, 이 글에서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신주'라는 단어에 뜻풀이를 추가하였다.

③ (다)에서 정전의 아름다움을 설명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추가하였다.

④ (가)에서 '그렇다면 종묘는 ~ 받는 것일까?'와 같이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⑤ (가)에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다.'라고 하여 종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종묘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05 <보기>에서는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분석하여 독자들이 종묘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건물들을 잘 모를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종묘를 구성하는 건물들과 그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글을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06 **서술형** ㉠(유례)은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를 뜻하는 말로, 문맥상 뜻이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다. ㉠은 문맥을 고려할 때 '갈거나 비슷한 예'라는 뜻을 지닌 '유례'로 고쳐 써야 한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39쪽

1단계 01 글의 목적, 글의 주제, 독자, 글을 실을 매체 02 독자

2단계 03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니,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04 표현 차원에서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지를 점검하였다.

3단계 05 '조선 시대에 사직단이 지닌 중요성'은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운데 1'을 삭제한다.

06 종묘 정전의 건축 방식이 국가의 중요한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독자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0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주제를 명확히 정하고, 독자, 글을 실을 매체를 설정하여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계획한다.

02 글을 고쳐 쓸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독자를 고려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는 독자이기 때문이다.

2단계

03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글쓰기 계획을 고려하여 여러 자료들을 글의 흐름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이때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니, 필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 04** '유일무이'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유일 무이'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은 맞춤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를 '유일무이'로 고쳐 쓴 것은 표현 차원에서 단어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되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3단계

- 05** '가운데 1'의 '조선 시대에 사직단이 지닌 중요성'은 '건축물로써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따라서 '가운데 1'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평가 목표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조정할 내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조정해야 할 내용과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조정해야 할 내용과 그 이유를 적절하게 썼지만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15점] ✓ 조정해야 할 내용을 적절하게 썼지만 그 이유를 적절하게 쓰지 못한 경우 [5점]

- 06** <보기 1>에서는 독자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잘 모르고 과소평가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보기 2>에서는 종묘 정전의 건축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독자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쳐 썼다.

평가 목표	독자를 분석한 결과와 이를 반영해 고쳐 쓴 내용 찾아보기
채점 기준	✓ 고쳐 쓴 내용과 글쓴이의 의도를 함께 쓴 경우 [20점] ✓ 글쓴이의 의도만 쓴 경우 [10점] ✓ 고쳐 쓴 내용만 쓴 경우 [5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40~42쪽

-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믿겨지지 / 피동 표현을 겹쳐 사용하였다(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① **11** ⑤ **12**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였다. **13** ②

- 01** 피동 표현은 능동사에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거나 '-아/어지다'를 결합하여 나타낸다. 또는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참되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문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표현이 달라진다.
 ② 능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③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④ '붙잡다'는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이다.

- 02** <보기>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새로운 영화가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가 된다. 이때 서술어인 '만들었다'에는 접사 '-리-'가 아니라 '-어지다'가 결합한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만들었다'는 '감독'이 만드는 동작을 제힘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② <보기>의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그 행위를 당한다는 의미가 되어 행위의 초점이 '새로운 영화'에 맞추어진다.
 ③, ④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능동 표현의 주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된다.

- 03** ①, ②, ③, ⑤는 모두 피동 표현인 반면, ④는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잡혔다'는 능동사 '잡다'에 접사 '-히-'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② '뺏혔다'는 능동사 '뺏다'에 접사 '-히-'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③ '깨졌다'는 능동사 '깨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⑤ '쏟아졌다'는 능동사 '쏟다'에 '-아지다'를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 04** ㉞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식탁이 안 닦인 사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행위 주체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㉝는 전달 내용에 대해 화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게 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05** **서술형** '믿겨지지'는 피동 표현을 겹쳐 사용하는 이중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믿다'에 접사 '-기-'를 붙여 '믿기다'로 써도 피동의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 06** <보기>는 간접 인용 표현이다.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할 때보다 인용하는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그대로 담겨 있어,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② 간접 인용 표현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으며, 인용하는 부분 뒤에 조사 '고'를 붙여 나타낸다.
 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 표현이다.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내용만 끌어 쓰고 형식은 유지하지 않는다.

- 07** 동생이 말한 대상인 '나'는 동생 자신이 아니므로, '나에게'를 '자기에게'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보기>의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동생은 어제 나에게 자기는 오늘 박물관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된다.

- 08**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는 원저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쓰려는 글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인용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활용할 때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올바르게 인용해야 한다.

②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의미를 훼손하는 인용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활용할 때는 인용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여 인용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④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의 견해에 따르면’, ‘~는 ~라고 말했다.’와 같이 원저자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표시해야 한다.

- 09** 이 글은 정전의 건축적 아름다움, 건축물로서 종묘의 가치 등을 설명하며 종묘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준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인 종묘를 소개할 목적으로 글쓰기를 계획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에는 종묘의 건축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만, 종묘를 관람하고 온 준서의 개인적 소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세계 유산과 국가유산의 차이점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종묘 정전의 길이가 길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종묘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일부에 해당한다. 준서가 쓴 글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⑤ 글에서는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음을 설명하며 종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0** <보기>는 올해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 등을 찾은 관람객 수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활용하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 11** ‘내용 조직하기’ 과정은 개요를 작성하면서 글의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글의 분량을 정하지는 않는다.

- 12** **서술형** <보기>의 자료에는 ‘동서가 109미터, 남북이 69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글쓴이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동서’와 ‘남북’을 각각 ‘가로’와 ‘세로’로 이해하기 쉽게 고쳐 쓴 것이다.

- 13** <보기>에서는 ㉠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맞춤법에 맞게 고쳐 쓴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박석’과 같은 단어를 <보기>에서는 ‘얇고 넓적한 돌’과 같이 풀어 썼다.

③ 문맥상 그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유례’를 <보기>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예’라는 의미를 지닌 ‘유례’로 고쳐 썼다.

④ <보기>에서는 독자가 어려워할 수 있는 ‘맞배지붕’이라는 단어의 옆에 그 뜻을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⑤ 종묘 정전의 모습만 제시된 ㉠의 사진과 달리 <보기>에서는 맞배지붕과 월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이를 설명하여 독자가 정전의 구성 요소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4 매체로 보는 세상



매체 환경에서 바르게 읽기

간단+복습문제

44쪽

쪽지 시험	01	간접적인	02	복합양식	03	신뢰성	04	×			
05	×	06	○	07	㉠	08	㉡	09	㉢, ㉣	10	㉤, ㉥
어휘 시험	01	기여했다	02	개입하는	03	유도하는	04	㉦			
05	㉧	06	㉨	07	㉩	08	성과급	09	마케팅	10	과태료

예상 정중 소단원 평가

45~47쪽

- 01 ⑤ 02 ⑤ 03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04 ④ 05 ⑤ 06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 07 ⑤ 08 ③
09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는 너지 효과가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

- 01** (라)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플랫폼 기업에서는 수백 개가 넘는 영화 중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맞춤형 영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초기에 설정한 선호도와,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청한 영화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고객에게 적절한 영화를 추천한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너지 효과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다)에서 화장실에 붙어 있는 문구보다 소변기에 붙인 파리 모양 스티커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마트 계산대 근처에 저렴한 제품을 배치하여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자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동구매는 무계획적 소비에 가까우므로 이 방법이 계획적인 소비를 돕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너지 효과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2** 소비 심리를 자극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비합리적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므로, 너지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너지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에 해당한다.

- 03** **서술형** (라)의 그래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라)의 ‘그 결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라는 내용과 연결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그래프를 활용하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다.

- 04** 이 글의 (가)에서 ‘자발적 지불 전략’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여 너지 효과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홍보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즉 너지 효과의 상업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

다. 또한 (나)~(다)에서는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 사례를 제시하여 너지 효과가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ㄴ). 한편 (나)에서는 중심 내용과 관련된 소재목인 ‘너지 효과로 두 마리 토끼 잡기!’를 문단의 첫머리에 제시하여 문단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이 글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ㄷ. 이 글은 너지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너지 효과의 의미가 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 05** ㉢는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이 너지 효과의 공익적 활용 사례 중 하나임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32퍼센트’라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너지 효과를 이용한 자발적 지불 전략이 고객의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에서는 너지 효과가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업적으로 활용되어 효과적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 ㉢에서는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은 공익적인 너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으므로, 이는 너지 효과가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④ ㉣는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으로 인해 계단 이용률이 높아졌을 때 나타난 효과이다. 이를 통해 너지 효과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됐을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06** (나)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소재는 ‘열량 소모량이 적힌 계단’이므로, 이에 대한 사진을 추가하는 것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 07** (라)에서 글쓴이는 너지 효과를 창의적이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하기를 당부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독자에게 너지 효과를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 너지 효과를 창의적이면서도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천시의 사례는 너지 효과의 효용성을 보여 주는 예시로 제시된 것이며, 쓰레기 문제 해결 자체가 글의 목적은 아니다.

② 글쓴이는 너지 효과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자유를 보장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고 말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경제적 유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08** 최근에 제작된 정보인지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제작한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지는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의 동영상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제작한 것이기에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졌는지는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의 동영상에는 ‘조선일보’라는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에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자료가 글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지는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보기>에 따르면 (가)의 동영상은 투표 쓰레기통 아이디어를 낸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가)에서는 투표 쓰레기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료가 글의 내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투표 쓰레기통에 관한 내용을 글로만 제시하는 것보다 (가)에 제시된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보충하면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다.

- 09** **서술형** (나)에서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며, 그 주된 이유가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는 너지 효과가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48쪽

1단계 01 복합양식

2단계 02 너지 효과는 금전적인 혜택이나 손실과 같은 경제적 유인 없이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3단계 03 (나)에 제시된 사진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타당성이 높다. 출처와 사진을 찍은 시기, 제작 기관 등이 밝혀져 있지 않아 신뢰성이 낮다.

1단계

- 01**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표현 양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복합양식이라고 한다.

2단계

- 02** (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유인’은 금전적인 혜택이나 손실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글쓴이는 너지 효과가 이러한 금전적인 혜택이나 손실을 주지 않고도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

3단계

- 03** (나)에서는 춘천시청 내 피아노 계단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에서 피아노 건반 모양의 계단을 너지 효과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아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처와 사진을 찍은 시기, 제작 기관 등이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목표	복합양식 자료를 내용 측면에서 평가하기
채점 기준	✓ 타당성, 신뢰성 측면에서 모두 적절하게 평가한 경우 [25점]
	✓ 타당성, 신뢰성 측면에서 모두 적절하게 평가하였으나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않은 경우 [15점]
	✓ 타당성, 신뢰성 중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적절하게 평가한 경우 [10점]



현실을 재현하는 매체 자료 분석하기

간단+ 복습문제

50쪽

- 꼭지 시험** 01 제작자 02 사회상 03 비판적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세심한 02 장원 03 특정 04 ㉠ 05 ㉠
06 ㉠ 07 ㉠ 08 재현 09 배제 10 이주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1~52쪽

- 01 ㉠ 02 의도와 관점 03 ㉠ 04 ㉠ 05 ㉠
06 ㉠ 07 여학생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 01 ㉠은 지수가 본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이다. 여기에는 북적이는 카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한적해 보이는 일부 모습만 담겨 있다. 이처럼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일부 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여 재현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에서는 현실이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한적하고 조용한 카페의 모습만 담고 있으므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거나 현실의 모든 측면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에는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02 **서술형** 지수가 본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물에는 북적이는 카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한적해 보이는 일부 모습만 선택되어 담겨 있다. 지수는 이 자료를 보고 카페에 방문했으나 자료와는 몹시 다른 카페에 모습에 ㉠과 같이 당황하였다. 이처럼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일부 요소를 선택하거나 배제하여 재현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에서는 현실이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 03 이 광고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단점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제품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단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장점만을 선택하여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작자는 '지구를 지키는'이라는 문구를 선택하여 제품의 친환경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② 제작자는 '버튼 하나로'라는 문구를 선택하여 제품의 조작이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 광고에는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점, 제품의 조작이 간편하다는 점 등 제품의 장점만 선택해 제시하고 있다. 반면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이나 추가적인 환경 문제 등의 단점은 배제되었다.

⑤ 광고에 지구가 웃고 있는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제품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04 ㉠에서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말자는 것은 당시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고, ㉠에서 둘만 낳자는 것은 점점 높아지는 인구 증가율이라는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5 “독서의 날을 맞아 우리 도서관에서 1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영상 홍보물을 만들기로 했잖아.”라는 준서의 말을 통해 1학년 학생들에게 책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도서관 학생들이 영상 홍보물을 만들려 함을 알 수 있다.

- 06 윤아가 “그런데 이때는 이미지 없이 문구만 넣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하면 1학년 학생들이 문구의 내용에만 집중할 것 같아.”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도서관 학생들은 홍보물의 끝부분에서 이미지를 배제하고 문구를 넣기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윤아가 “등장인물 소개 이후에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4학년 사생 대회 때 장원 수상자가 바뀌었던 것이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면 어떨까?”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유가 “먼저 등장인물 소개를 넣자. '0'의 주인공은 '미술에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 '1'의 주인공은 '취미로 그림을 배운 부잣집 고명딸'이라는 문구로 두 인물의 차이를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유가 “영상 홍보물의 끝부분에는 소설의 주제를 문구로 직접 드러내지 말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바뀐 두 인물의 운명, 사생 대회의 장원에 얽힌 비밀'이라는 문구를 넣자. 1학년 학생들이 소설의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말이야.”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민재가 “두 주인공이 사생 대회에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은 빼면 어떨까?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0'의 주인공이 장원 상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7 **서술형** 제시된 매체 자료에는 여학생이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여학생이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문제

53쪽

1단계 01 재현 02 사회상

2단계 03 이 광고는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해 주는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하여, 제품을 많이 판매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3단계 04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시스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배제하였다.

05 매체 자료에는 <보기>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드러나곤 한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와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1단계

- 01 <보기>는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매체 자료에 재현된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선택과 배제를 통해 재현된 현실이다. 따라서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 선택과 배제의 내용에 따라 현실은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 02 매체 자료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제작·유통되므로 사회상이 반영된다. 출산을 장려하는 매체 자료 역시 저출생이라는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다.

2단계

- 03 <보기>의 광고는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당당하게!’와 같은 문구와 선크림이 만들어 준 그늘에서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통해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해 주는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이 광고에는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단계

- 04 제시된 광고는 ‘지구를 지키는’, ‘버튼 하나로 지구를 지켜 보세요’와 같은 문구를 통해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 따르면 이 제품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는 오히려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광고 제작자는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단점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량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내용을 선택하고 배제한다.

평가 목표	매체 자료에서 배제된 내용 찾기
채점 기준	✓ 제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을 포함해 배제된 내용을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배제된 내용을 적절하게 썼으나 제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을 쓰지 못한 경우 [15점] ✓ 제품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 05 <보기>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고정 관념은 매체 자료 속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처럼 은연중에 제시되기 때문에 수용자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잘못된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살피고, 특정 집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주의하며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가 목표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 알기
채점 기준	✓ <보기>에 나타난 문제점과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올바른 자세를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올바른 자세만 적절하게 쓴 경우 [15점] ✓ <보기>에 나타난 문제점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54~56쪽

- 01 ③ 02 너지 효과가 적용된 사례의 실제 모습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03 ⑤ 04 ④ 05 ④ 06 ④
07 ② 08 젊은 사람들만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고정 관념 09 ②
10 ②

- 01 이 글은 너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다.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 의견을 언급하고 있으나 장점과 단점을 균등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로 너지 효과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의 구체적 수치가 담긴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활용하면 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② (가)에서 너지 효과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여 너지 효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나)에서는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의 남자 화장실 소변기의 사례, (다)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사례, (라)에서는 투표 쓰레기통 사례를 제시하여 너지 효과가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마)에서 너지 효과가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 뒤, 너지 효과는 특정 선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는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 02 **서술형** (나)에서 너지 효과를 적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소변기 중앙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나)에서 그림을 활용하면 너지 효과가 적용된 사례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나)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03 (다)에서는 너지 효과가 마케팅에 도입된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다)에 제시된 그래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그래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독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다)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자료가 관련성이 높으므로 자료의 타당성이 높고, 표현 방법도 적절하다. 이와 관련 있는 의견을 낸 학생은 ‘민지’와 ‘준서’이다.

오답 풀이

수진: (다)의 그래프에는 ‘매거진 환경’이라는 자료를 제작한 주체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므로 그래프는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수: (다)의 그래프는 너지 효과가 마케팅에 적용된 사례, 즉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를 들고 있다. 따라서 너지 효과가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은 너지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의미한다. (마)에 따르면 ㉠은 너지 효과가 무의식중에 선택을 유도하여 사람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 너지 효과가 마케팅 분야에 활용됨으로써 상업

적 목적을 달성한 예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서 너지 효과는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온다고 하였으며, (라)에서 너지 효과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된 사례도 제시되므로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 따르면 너지 효과는 직접적인 강요나 명령, 즉 처벌과 보상을 활용하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너지 효과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너지 효과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설명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05** ④는 문자와 동영상상을 결합한 복합양식으로, ⑤는 문자로 이루어진 단일양식으로 투표 쓰레기통의 모습과 이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⑥의 내용은 ④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⑥가 ④보다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는 복합양식으로 된 글로, 글과 함께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고 있다.

② ④에 제시된 글의 내용으로 보아 동영상에서는 시민들이 투표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⑥는 문자만을 활용한 단일양식으로 투표 쓰레기통의 모습과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⑤ ④와 ⑥는 모두 인터넷 기사의 형식으로 투표 쓰레기통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6**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제작자의 관점을 배제하고 사실만 파악하려는 것은 매체 자료의 특성을 간과한 태도이다.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특정 내용이 선택되거나 배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 07** 이 광고는 자외선을 강력하게 차단해 주는 선크림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을 뿐, 자외선의 위험성을 부각하여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바다에서도_산에서도'라는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야외 활동 시 선크림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③ 해변과 제품 이미지를 함께 배치하여 야외에서 선크림을 사용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다.

④ '뜨거운 태양 앞에서도 당당하게!'라는 문구를 통해 강한 햇빛 속에서도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⑤ 시각적 이미지와 문구, 해시태그를 결합하여 선크림의 필요성을 부각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 08** **서술형** 이 광고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20대의 젊은 사람들보다 문화 예술 관람률이 높아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젊은 사람들만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고정 관념을 깨고 노인들도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09** 이 광고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광고에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밝

은 모습들이 나타나 있을 뿐, 다양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 주는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 주는 이미지를 선택해 문화적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밝은 모습이 중심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 청소년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은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신 국적과 상관없이 청소년 모두가 서로 어울리며 밝게 지내는 모습을 선택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③ '우리는 모두 우리!'에서는 '우리'를 반복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카리나의 친구 하늘'은 이주 배경 청소년인 카리나와 한국 청소년인 하늘이 친구 사이임을 드러낸 것으로, 이주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10** 이 광고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소재로 한 공익 광고로, 한국 사회에 이주 배경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실전에 강한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58~64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②	06 2002
07 ④	08 ④	09 ⑤	10 ②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⑤	16 만도가 한쪽 팔	
17 ⑤	18 ③	19 ③	20 ⑤	21 ⑤	22 ①
23 ⑤	24 ⑤	25 ②			

- 01 (라)에서 질 리메가 생각하는 월드컵의 목적은 축구를 통한 국제 친선과 화합이었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레드 스타는 신분과 계급을 불문하고 회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질 리메가 스포츠 종목에서 활약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③ (라)에서 질 리메는 파리에서 국제 축구 연맹이 창설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므로, 질 리메가 창설자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국제 축구 연맹을 창설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라)에서 올림픽 축구 대회는 당시 아마추어리즘 원칙에 따라 프로 선수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 02 <보기>에서 준서는 글쓴이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월드컵의 유래와 역사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읽으려 하고 있다.

②, ③ 이 글이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힐 것 같고 분량도 적당해 보인다고 하며 글의 분량과 글의 난이도를 고려하고 있다.

⑤ 자신이 평소에 축구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

- 03 ㉔에서는 월드컵 이전에 올림픽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었고, 그 안에 축구 종목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올림픽에서 축구 경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독자가 이 글을 읽으며 점검하고 조정한 내용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 예측하기' 방법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독자는 (라)를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방법으로 점검·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독자는 (다)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관해 자신이 들은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이해하고 있으므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방법으로 점검·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독자는 (나)에서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에 관해 주관적 판단이라며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글쓴이의 생각이 독자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글의 내용과 자신의 생각 비교하기' 방법으로 점검·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독자는 (가)에서 1982년 월드컵을 최초의 진정한 월드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질문한 뒤 글에서 그 답을 찾으며 읽고 있으므로, '글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며 답 찾기' 방법으로 점검·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5 차레를 살펴보면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은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점검·조정 활동이다.

오답 풀이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을 읽은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내용 정리하기(④), 글의 주제나 주요 내용 정리하기(①), 더 알고 싶은 내용 찾아보기(⑤), 자신의 읽기 활동 평가하기(③)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06 **서술형** 글쓴이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진정한 월드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전과 달리 다양한 대륙의 국가들이 8강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 07 이 글에서 육식의 장점이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쓰기 목적이 영양 선생님께 채식 식단을 제공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므로, 육식의 장점을 제시하는 것은 쓰기 맥락과 맞지 않는 내용이다.

- 08 <보기>의 자료는 인간이 대기로 배출하는 탄소의 순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영양 선생님께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 달라고 건의하려는 글의 목적이나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기>를 제외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료의 출처는 <보기>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② 자료의 내용이 과장되었는지는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다.

③ 자료를 제작한 '비비시 뉴스(BBC NEWS) 코리아'는 공신력이 낮은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독자는 자유가 다니는 학교의 영양 선생님이므로 <보기>의 내용이 선생님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 09 건의문에서 '끝' 부분은 글을 요약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근거는 '가운데' 부분에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새로운 근거를 '끝' 부분에 덧붙인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글의 처음 부분에서 자신이 2학년 박자유임을 밝히고, 영양 선생님과 조리원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육류 위주의 식단이 환경 오염과 청소년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통계 자료와 연구 결과를 활용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뉴스 방송 화면, 통계 그래프, 방송 영상과 같은 복합양식 자료를 글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한 달에 한 번 채식 식단 도입이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했을 때 환경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이라는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10 글을 쓸 때는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글의 끝부분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 글은 글의 끝부분에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민주'의 조언은 적절하다. 또한 이 글에서는 채식 식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독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따라서 '태연'의 조언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현진: 채식 식단으로 인해 잔반이 많이 남은 사진은 채식 식단 도입을 건의하려는 글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현진의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 11 복합양식 자료를 글에 활용한다고 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한 없이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글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복합양식 자료는 글, 그림, 사진, 도표 등 여러 양식을 함께 활용하므로 독자가 글의 내용을 시각적·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이해를 돕는다.

③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글로만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양한 양식으로 보여 줄 수 있어, 글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뉴스 기사, 통계 자료, 인터뷰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글에 선정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매체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⑤ 이미 한 차례 가공된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면 처음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2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뿡! 굴 안에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내마이트가 터졌다.’ 등과 같은 감각적 표현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다.

- 13 ‘두 개의 지팡이를 짚고 절룩거리며 걸어 나가는 상이군인이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가 가지는 않았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만도가 출찰구에서 본 상이군인이 진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4 ㉠(공습)은 ‘공중 습격’을 줄여 이르는 말로, 만도가 징용에 끌려갔을 당시 전쟁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 단어이다. ㉡(상이군인)은 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을 의미하는 말로, 당시 전쟁 중에 몸을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단어이다.

- 15 (나)에서 만도는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진수를 기다린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잃은 진수를 만난 순간 눈앞이 노래지고 코허리가 찡해지는 등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

- 16 **서술형** ④는 만도가 이후 겪는 비극적인 사건, 즉 한쪽 팔을 잃게 되는 사건을 암시한다. 만도가 꺼림칙한 기분을 느낀다거나, 모기에 물린 자리가 자꾸 씹씹 찌시는 것, 찌시는 자리를 긁어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 성냥불이 자꾸 꺼지는 것 등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 17 외나무다리는 만도와 진수가 홀로 건너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련과 고난의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도가 진수를 업고 함께 건너 간다는 점에서 수난을 극복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 18 [A]에서 만도는 혼자서 외나무다리를 건널 수 없는 진수에게 외나무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로 보아 만도는 고난이나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해결책을 생각하는 능동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19 이 글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직접 등장하여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서술의 중심이 가까운 시점인 만도 부자(사람)에게서 먼 시점인 옹머리재(자연)로 옮겨 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④ 부자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광경을 옹머리재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라는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만도와 진수가 겪은 수난은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부자의 모습을 옹머리재가 묵묵히 내려다보는 장면은 이들의 개인적 고난이 민족 전체의 수난과 그 극복 의지로 확장되는 효과를 준다.

- 20 결말에서 만도 부자가 함께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작가는 결말 부분에서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인물들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화합과 협력을 통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려 함을 알 수 있다.

- 21 이 웹툰에서 영훈은 엄마가 자신과 나리를 차별하지 않고 대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엄마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영훈이 공부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2 엄마와 영훈은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으므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② 엄마는 영훈에게 “앞날이 뻥하다”라며 비난하고, 영훈도 엄마에게 “차별 완전 심해” 등 비난하는 말을 주고받고 있다.

③ 엄마는 영훈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영훈 역시 엄마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자기 불만만 표출하고 있다.

④ 엄마는 영훈이 느끼는 감정을, 영훈은 엄마의 걱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⑤ 엄마는 영훈의 감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인 수능 준비의 중요성만을 앞세우고 있다.

- 23 ‘무슨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를 묻는 사라의 말로 보아, 민수는 사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수의 대화 방식은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민수에게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피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 24 <보기>에서 현수는 미래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미래는 현수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표현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표현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표현이다.

- 25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진솔하게 이야기하여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하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실전에 강한

기말고사 대비 모의고사

65~71쪽

01 ③	02 3개	03 ②	04 ③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9 ③	10 ⑤	11 ④	12 ③
13 ①	14 ①	15 ②	16 너지 효과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 너지 효과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한다.	17 ⑤	
18 ③	19 ④	20 ⑤	21 ④	22 ③	23 ③
24 ④	25 ③				

01 ㉠에서 사육하는 행위의 주체는 ‘소’가 아니라 ㉠과 마찬가지로 ‘그’이다. ‘소’는 ‘그’에 의해 사육하는 행위를 당하는 주체이다.

02 **사슬형** <보기>에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은 ‘그림이 벽에 걸렸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집이 사람들에게 헐렸다.’이다. ‘그는 열쇠로 문을 잠갔다.’는 주어와 행위를 제함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능동 표현에 해당한다.

03 ㉠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경우, 명사 ‘정리’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책상이 민수에 의해 정리되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을 피동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능동사 ‘잡다’에 접사 ‘-히-’를 결합하여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③ ㉠을 피동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책상’에 ‘이/가’를 결합하여 피동문의 주어로 삼아야 한다.

④, ⑤ ㉠을 피동 표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에 의해’를 결합하여 부사어로 만들고, 능동사 ‘만들다’에 ‘-어지다’를 결합하여 ‘새로운 로봇이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0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 ‘유발’에 접사 ‘-되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2차 피해)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대상을 비난하지 않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05 ㉠은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피동 표현을 남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생각’은 주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생각되어진 다’는 ‘-되다’와 ‘-어지다’가 같이 쓰인 이중 피동 표현으로, ㉠을 바꾸어 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보기 1>의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선생님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쭙었다.’로 바꿀 수 있다. 이처럼 직접 인용 표현 안에 있는 ‘저’를 ‘나’로 바꾼다는 의견(민우)과 ‘해요’를 ‘하냐’로 바꾼다는 의견(태현)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하영: ‘여쭙었다’는 직접 인용된 서술어가 아니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은사: ‘라고’는 직접 인용 표현에 사용되는 조사로, 이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경우에는 간접 인용 표현에 사용되는 조사인 ‘고’로 바꾸어야 한다.

07 ㉠은 직접 인용 표현이, ㉡은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하는 말에 담긴 화자의 어조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간접 인용 표현에 비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에 비해 인용하는 말에 담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8 간접 인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원저자의 의도에 자신의 주관을 섞어서 제시하면 원저자의 생각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있다.

09 준서네 학교 학생들이 종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준서가 예상 독자를 준서네 학교 학생들로 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종묘에 관해 많이 들어 봐서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0 ㉡은 4대 궁궐과 종묘, 조선 왕릉의 관람객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축물로서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고 종묘의 건물에 대한 내용도 아니므로 글에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은 월대의 개념을 통해 종묘의 건축적 특징을 설명하는 자료로, 글의 주제와 연관되어 글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례’ 등의 단어는 예상 독자에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무슨 뜻인지 찾아보겠다는 생각은 적절하다.

③, ④ ㉡은 종묘 정전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이유를 다루고 있으므로 글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에 함께 제시된 동영상 자료는 학교 신문이라는 매체를 고려할 때 글에 실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글을 쓰는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정하는 활동은 내용을 조직할 때에 하는 활동이 아니라 글쓰기를 계획할 때 해야 하는 활동이다.

12 이 글은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루고 있으므로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지 점검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은 ‘종묘가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라는 글의 중심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한 제목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고쳐 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말을 직접 인용으로 바꾼다면,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독자의 흥미도 끌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③ ‘중축’이라는 한자어는 예상 독자인 학교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이므로, 같은 의미인 ‘늘려 짓기’로 풀어 쓰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④ ‘유래’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바’를 뜻하는 말로, 문맥상 ㉡에 들어가기 어색하다. ㉡에는 ‘같거나 비슷한 예라는 뜻을 지닌 ‘유례’라는

단어를 넣어야 자연스러우므로, ㉔를 '유례'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㉕ '박석'은 독자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어 어려운 단어이므로, '얇고 넓은 돌'로 풀어 쓰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다.

14 이 글은 문자, 그래프, 사진과 같은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ㄱ). 또한 글의 중심 소재인 '너지 효과'가 마케팅에 적용된 사례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ㄴ).

15 이 글은 너지 효과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서 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너지 효과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16 **서술형** ㉔와 ㉕는 너지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㉔에서 글쓴이는 너지 효과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것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에 해당한다.

17 (나)에 제시된 그래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그래프는 구독자 수 증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그래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구독자 수 변화를 다루고 있고 (나)에서도 역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높아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그래프는 미국 지역에서의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독자 수를 다루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이다.

③, ④ 그래프 하단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고, 언론사에서 제작한 자료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18 이 글에 따르면 너지 효과의 상업적 사례와 공익적 사례는 모두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사례이므로, 그 원리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글에서 글쓴이는 너지 효과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너지 효과의 공익적 사례와 연관이 있으므로, 공익적 사례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달리기로 인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제시한 영상은 달리기의 단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보기>의 제작 의도와 반대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기>의 자료에 제시할 표현 양식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지수가 본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는 북적이는 카페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한적해 보이는 일부 모습만 담겨 있어, 지수는 실제로 카페를 방문했을 때 사람이 생각보다 더 많아 당황했

다. 이로 보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게시된 사진과 같은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새롭게 재현된 현실을 보여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전문가 B는 "잔여물의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처리 방식에 따라 환경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 잔여물이 항상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22 (가)에서 전문가 B는 미생물 기반 음식물 처리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와 관련한 문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는 '지구를 지키는 똑똑한 음식물 처리기', '버튼 하나로 지구를 지켜 보세요'와 같이 제품이 친환경적임을 보여 주는 문구가 나타나 있다.

② (가)에서 전문가 B는 잔여물 처리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나, (나)는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지 않았다.

④ (가)에서 전문가 B는 제품 유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문제를 지적했으나, (나)는 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하여 나타나지 않았다.

⑤ (나)는 지구가 웃는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보기>에 따르면 홍보물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문구 중 '딸 아들 구별 말고'에는 당대에 존재했던 남아 선호 사상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는 크게 높아진 인구 증가율이 반영되어 있다.

24 제시된 매체 자료에서는 남성이 육아를 하고 여성이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담음으로써 남성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육아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매체 자료는 남성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가치와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제시된 매체 자료에는 노약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제시된 매체 자료에서는 문구를 통해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사례가 주변에 흔히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작자의 주관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제시된 매체 자료는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젊은 사람들의 문화생활 향유와는 관련이 없다.

25 매체 자료는 필연적으로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현실을 새롭게 재현한다. 따라서 자료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분석 방법이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word 'MEMO'.

The page contains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practice, spaced evenly across the p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word 'MEMO'.

The page contains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practice, evenly spaced across the p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framed by a light blue border with decorative cloud-like shapes at the top and bottom corners.